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의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월 23일 (토) 제 1810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자유롭게 신앙 누릴 날이 올 때까지!

오픈도어즈, 2021년 기독교인 되기 어려운 50개국(WWL) 발표

매일 12개의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는다. 그리고 매일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투옥되고, 5명이 납치된다.

오픈도어즈(Open Doors)는 최신 연간 보고서 2021 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WWL))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가장 심하게 박해를 받는 상위 50개 국가에 대해 보고를 했다

(The 50 Countries Where It's Most Dangerous to Follow Jesus in 2021: Latest report on Christian persecution finds 3 in 4 martyrs are in Nigeria, ranked among 10 worst persecutors for first time).

북한은 워치리스트가 설립된 2002년 이후 20년 동안 1위 기록

기독교 박해에 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워치리스트가 설립된 2002년 이후 20년 동안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박해국 10위권 안에 처음으로 진입한 나이지리아에서 순교자 4명 중 3명이 순교했다. 수단은 결국 10위권 밖으로 나갔고, 인도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모잠비크와 콩고민주연합이 오픈도어 와치리스트에 추가됐다.

오픈도어즈의 대표 겸 CEO인 데이비드 커리는 최근 발표된 위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크리스천들은 침묵한 채 믿음을 잃고 서로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수는 교회가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커리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 대신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린다.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43:19)."

순위에 든 국가에는 엄청난 극도의 박해를 받는 지역에 사는 3억9백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다. 이는 작년의 2억6천만 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상위 50위권에 속하지 않은 쿠바, 스리랑카, 아랍 에미리트



와 같은 24개국의 3100만 명을 추가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 8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의 6명 중 1명, 아시아의 5명 중 2명이 포함된다.

작년 45개국이 오픈도어즈의 84개 기준 문항을 통해 "매우 높은" 박해 수준을 보여준 만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29년 만에 처음으로 50개 국가 모두가 이 기준치를 넘어섰으며, 기준치에 매우 근접한 4개국이 더 있다.

오픈도어즈는 작년의 증가를 주도한 3가지 주요 추세를 분석했다.

①코로나19가 구호 차별, 강제 개종을 통해 종교적 박해를 촉진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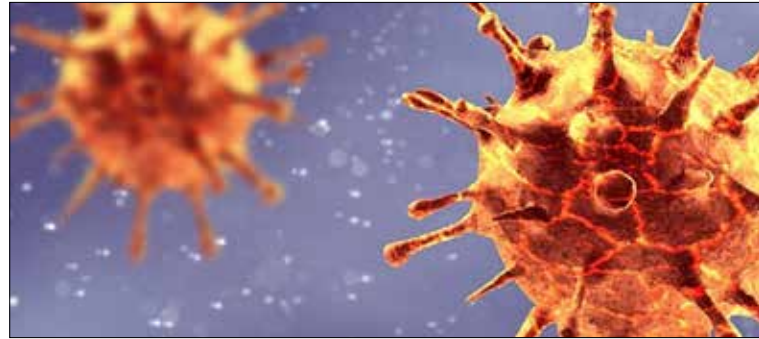
서에서 의해 수직됐다. 데이비드 커리는 올해의 순위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박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듣고 있으며,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것만 보고한다"고 말했다.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북한의 상황을 기록한 연간 WWL 순위의 목적은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도움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해가 가장 심한 10개국은 올해도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바로 북한, 그 다음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 순이다.

나이지리아는 오픈도어즈의 최대 폭력 측정 기준을 적용한 후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이 나라는 전체적으로 9위이지만 폭력 측면에서는 파키스탄에 이어 2위,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한 기독교 인구수에서 1위를 기록했다.

(3면으로 계속)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얼마나 위험한가?

BBC, 영국·남아공·브라질서 출현한 변이 바이러스 소개와 연구방향 보도

세계 곳곳에서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감염성이 높은 새로운 변이 형태가 출현하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기 위해 긴급 연구에 돌입했다고, BBC는 보도한다(New Covid strain: How worried should we be?).

변이 코로나바이러스란?

지만 그중에는 전염성이나 치명률을 높이는 변종들이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세계 각지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변이 바이러스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얼마나 심각한가?

△영국에서 발견돼 50개 국가로 퍼진 영국 변종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돼 최소 20개국으로 퍼진 남아공 변종 △브라질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종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높고 감염되기 쉬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퍼지고 변형하기 위해 새로운 복제물을 만들며 변이 과정을 겪는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돌연변이만 수천 개에 달하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들은 모두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생겼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가 세포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주요 부위다.

어떤 변종은 바이러스 자체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하

영국 공중보건국(PHE)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30-50%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냈지만, 전문가들은 그 수치를 최대 70%까지로도 추정하고 있다. 최초 발생 시점은 지난해 9월로 추정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부른초장 김진화 목사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김봉은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일세리/백스펠러/성구/성화책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chpress@chpress.net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2021년 봄 학기 입학안내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독서, 목상, 교제가 가능한 고품격 북카페가 마련되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졸업생은 원할 경우에 2년 인턴과정 후, 심사를 거쳐 개혁교회 지원함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 2매
- 6 입학 전형료 (\$30)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접수마감 : 2021년 1월 29일(금) 오후6시
- 2 원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3 입학 시험 : 2021년 1월 30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강 부흥회 : 2021년 2월 1일(월)-2월 3일(수) 저녁 7시45분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 학감, 교무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rptseast.org (718)463-7163
학감 허윤준 목사 (718)637-147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자유롭게 신앙 누릴 날이 올 때까지!

<1면에서 계속>

수단은 배교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고 지난 30년간의 강행한 이슬람법 이후 새로운 헌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오픈도어즈 연구진이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공격, 배척, 차별을 당하고 있고, 기독교 여성들은 성폭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3위에 남아 있다.

인도는 "정부가 승인한 힌두교 극단주의로 인해 소수 종교에 대한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3년 연속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한편 중국은 "기독교인과 기타 소수 종교에 대한 감시와 검열이 계속되고 있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위 20위권에 들었다.

△오픈도어즈 보고 기간: 2019년 11월-2020년 10월

△순위의 다른 큰 변화: 콜롬비아는 게릴라, 범죄 집단, 원주민 사회의 폭력과 세속적 편협함이 커지면서 41위에서 30위로 11계단 상승했다. 터키는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증가로 인해 36위에서 25위로 11계단 상승했다. 방글라데시는 로힝가 난민 가운데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38위에서 31위로 7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박해가 폭력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아래 설명 참조). 예를 들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25위에서 35위로 10계단 하락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케냐에서는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이 "상당히 증가"했지만 43위에서 49위로 6계단 하락했다.

한편 남수단은 오픈도어즈가 추적한 폭력성 관련

조사에 의하면 9위를 기록해, 가장 폭력적인 10대 국가 중 하나로 손꼽혔다. 그러나 와치리스트의 순위에서는 현재 69위를 기록하며 상위 5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오픈도어즈는 개인, 가족 및 회중에 대한 사회적 및 정부 압력을 포함해 6개 범주에 걸쳐 박해를 추적하며 특히 여성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폭력이 하나의 범주로 분리되면 상위 10개국의 순위는 극적으로 변하며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만 남게 된다. 실제로 현재 20개국에 북한보다 기독교인에게 치명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순교자 수는 4,761명으로 전년에 집계된 2,983명에서 60% 증가했으며 2019년 보고서에 기록된 4,305명을 넘어섰다(오픈도어즈는 1년에 10만 건의 순교자 수를 집계하는 다른 단체보다 더 보수적인 추정치를 사용한다).

기독교인 순교자 10명 중 9명은 아프리카에서 사망했고, 나머지는 아시아에서 사망했다. 오픈도어즈가 조사한 2021 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의 순교자는 3,530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기독교인 납치는 1,710명으로 전년도에 처음 집계된 1,052명에서 63%까지 증가했으며, 나이지리아는 990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파키스탄은 작년에 새로 조사된 범주인 강제 결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약 1,000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의지에 반해 비기독교인들과 결혼했다. 오픈도어즈가 집계한 강제결혼의 72%는 아시아에서 있었고, 나머지 28%는 나이지리아가 주도한 아프리카가 차지했다.

중국은 오픈도어즈가 이전부터 조사해온 다른 두 범

주의 주요 위반국이다.

전 세계적으로 총 4,277명 중 중국에서만 1,147명의 기독교인을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죄목 없이 체포 또는 구금했다. 오픈도어즈의 집계는 작년 3,711건, 2019년 3,150건에서 증가했다.

한편, 교회의 공격과 강제 폐쇄는 대다수가 중국에서 발생했고, 그 다음을 나이지리아가 그 뒤를 이으며 전 세계적으로 4,488건에 달했다. 작년 보고서에서 집계는 1,847건에서 9,488건으로 치솟았으며 중국에서만 5,576건을 기록했다.

앙골라는 2,000건으로 2위, 르완다는 700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두 국가 모두 박해 상위 50개국에 속하지 않았다. 앙골라는 68위, 르완다 72위).

박해의 동기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차이점을 이해하면 다른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포위당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고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2위 박해국으로 손꼽히는 공식적으로 무슬림 국가지만 오픈도어즈 연구에 따르면 그곳에서 박해의 주된 동기는 이슬람 극단주의가 아니라 인종적 적대감 또는 보고서에서 "종족억압"이라고 지칭한 이유 때문이다.

기독교 박해의 주요 원인 8가지 항목

다수가 기독교이다: 나이지리아(9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35위), 에티오피아(36위), 콩고민주공화국(40위), 카메룬(42위), 모잠비크(45위), 케냐(49위).

△종족 억압(6개국):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주요 박해의 원인이다: 아프가니스탄(2위), 소말리아(3위), 라오스(22위), 카타르(29위), 네팔(34위), 오만(44위).

△독재적 편집증(5개국): 이는 기독교인들이 5개국에서 직면하는 주요 박해의 원인이며, 대부분 다수의 무슬림이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다: 우즈베키스탄(21위), 투르크메니스탄(23위), 타지키스탄(33위), 브루나이(39위), 카자흐스탄(41위).

△종교적 민족주의(3개국): 이는 아시아 3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주요 박해의 원인이다. 기독교인은 주로 인도(10위)의 힌두 민족주의자나 미얀마(18위)와 부탄(43위) 불교 민족주의자의 표적이 된다.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이후의 억압(3개국): 이는 기독교인들이 아시아의 3개국에서 직면하는 주요 박해의 원인이다: 북한(1위), 중국(17위), 베트남(19위).

△기독교 교단 보호주의(2개국): 이는 기독교인들이 에리트레아(6위) 및 에티오피아(36위)에서 직면하는 박해의 주요 원인이다.

△조직범죄와 부패(2개국): 이는 콜롬비아(30위) 및 멕시코(37위)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주요 박해의 원인이다.

△세속적 편협함(0개 국가): 오픈도어즈는 이를 기독교인이 직면한 박해의 원인으로 추적했지만 조사한 50개 국가 중 어느 곳에서도 주요 원인이 아니었다.

△이슬람 억압(29개국): 이는 기독교인이 "극단적인" 수준의 억압을 직면한 12개국 중 5개국, 즉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기독교인이 직면한 주요 박해의 원인이다: 리비아(4위), 파키스탄(5위), 예멘(7위), 이란(8위), 시리아(12위). 30개국 중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무슬림 국가이거나 인구 중 다수가 무슬림이다.

그러나 7개국은 실제로

적어 있는 사람은 즉시 격리 하라는 조치도 내렸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7월에 등장했고 최근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여행객 4명에게서 발견됐다.

<4면으로 계속>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얼마나 위험한가?

<1면에서 계속>

영국 당국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자 최근 봉쇄조치를 내렸다.

남아공 변이는 지난해 10월에 등장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보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중대한 변이가 발생한 종이다. 여러 돌연변이 요소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동일하다.

변이 요소가 두 가지 더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부분

백질에 중대한 변이가 발생한 종이다. 여러 돌연변이 요소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동일하다.

변이 요소가 두 가지 더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부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1면에서 계속>

팬데믹(pandemic)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염병을 뜻하는 말이다.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WHO(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WHO는 팬데믹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1년을 지나면서 막연한 공포가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왔다. 뭔가 이상한 느낌의 두려움이 인류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87%가 자신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주요국 전체 평균은 67%).

그런데, 요즘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글 제목을 볼 수 있다. 바로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000'라는 제목이다. 이런 표현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보다 두려운 건 예술이 잊혀지는 것',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건 배고픔', '코로나보다 두려운 건 자연재해' 등 어느 분야에 관한 글을 쓸 때 사용되는 예문이 되어버릴 정도가 되었다.

연말에 발표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에는 아예 이 문장이 설문지의 질문내용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한국 사람이 코로나19 자체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몇 가지가 두드러졌는데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이라는 대답이 68%였다. 10명 중 거의 7명이 실제 확진판정을 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확진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즉,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는 말에서 '이것'은 코로나19이고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보다 외부의 시선을 더 무서워한다는 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을 들여다보자. 바로 이 모습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가? 본질보다 외형중심의 기독교 신앙.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당연히 생각해온 예배의 자리를 뺏기고 영상화면 앞에 앉았는 모습. 이전처럼 교회갈 수 없다, 이전처럼 예배할 수 없게 된 현실은 사실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이다. 이 슬픔을 두려움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익숙하던 것을 잃어버린 아쉬움과 슬픔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대답을 알려주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반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6:6).

바이러스보다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더 무서운 대담 앞에서 교회는 본질보다 외형적 신앙생활을 더 중시해온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가를 짚어보아야 한다. 1년 동안 교회 앞에 펼쳐진 이상한(?) 현상들과 정부의 정책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병은 일단 인정하고, 알리라고 했다. 교회는 어디가 병들었는지, 내 신앙은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어서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어떤 방법에서, 이론에서 대안 찾기를 내려놓고 기독교진리의 본질 앞에 서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육체문제에 매달려온 신앙을 점검하고, 육체를 넘어 영생의 문제를 분명하게 찾아가는 본질적 교회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이야기야말로 교회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한다. 원색복음은 유지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이다.

인간의 지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위기극복의 수준을 넘어 영생의 문제 앞에 나가야 진정한 지혜이다. 성경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었다면 지금 교회가 진정 무서워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교회는 어디에서 있어야 할지 그 대답은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djlee7777@gmail.com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1면에서 계속>

팬데믹(pandemic)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염병을 뜻하는 말이다.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WHO(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WHO는 팬데믹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1년을 지나면서 막연한 공포가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왔다. 뭔가 이상한 느낌의 두려움이 인류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87%가 자신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주요국 전체 평균은 67%).

그런데, 요즘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글 제목을 볼 수 있다. 바로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000'라는 제목이다. 이런 표현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보다 두려운 건 예술이 잊혀지는 것',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건 배고픔', '코로나보다 두려운 건 자연재해' 등 어느 분야에 관한 글을 쓸 때 사용되는 예문이 되어버릴 정도가 되었다.


연말에 발표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에는 아예 이 문장이 설문지의 질문내용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한국 사람이 코로나19 자체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몇 가지가 두드러졌는데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이라는 대답이 68%였다. 10명 중 거의 7명이 실제 확진판정을 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확진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즉,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는 말에서 '이것'은 코로나19이고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보다 외부의 시선을 더 무서워한다는 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을 들여다보자. 바로 이 모습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가? 본질보다 외형중심의 기독교 신앙.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당연히 생각해온 예배의 자리를 뺏기고 영상화면 앞에 앉았는 모습. 이전처럼 교회갈 수 없다, 이전처럼 예배할 수 없게 된 현실은 사실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이다. 이 슬픔을 두려움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익숙하던 것을 잃어버린 아쉬움과 슬픔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대답을 알려주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반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6:6).


바이러스보다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더 무서운 대담 앞에서 교회는 본질보다 외형적 신앙생활을 더 중시해온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가를 짚어보아야 한다. 1년 동안 교회 앞에 펼쳐진 이상한(?) 현상들과 정부의 정책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병은 일단 인정하고, 알리라고 했다. 교회는 어디가 병들었는지, 내 신앙은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어서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어떤 방법에서, 이론에서 대안 찾기를 내려놓고 기독교진리의 본질 앞에 서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육체문제에 매달려온 신앙을 점검하고, 육체를 넘어 영생의 문제를 분명하게 찾아가는 본질적 교회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이야기야말로 교회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한다. 원색복음은 유지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이다.

인간의 지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위기극복의 수준을 넘어 영생의 문제 앞에 나가야 진정한 지혜이다. 성경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었다면 지금 교회가 진정 무서워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교회는 어디에서 있어야 할지 그 대답은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djlee7777@gmail.com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1.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0)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Exam Subjects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Genesis 22:1-19 (2) NT Exegesis Text : Matthew 5:1-12
(3) Thesis Topic : Evaluate the "Online Worship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ed Theology
(4) Sermon Text : James 5:7-11 / Amos 8:11-14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①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②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③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④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⑤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l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③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c) Oral Interview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1. (Package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1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5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8-21, 2021).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a) Dates : May 11(Tue)-12(Wed), 2021
b) Place : Eastern Reg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estern Region: Dae Hwang Korean Church(Rev. David Y. Kwon)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Accompanying Documents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1.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Miscellaneous Information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1-12, 2021) through Rev. John Y. Song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John Y. Song
Address : 1641 W. 185 th St , Gardena CA. 90248
Cell : (818) 282.0112 E-mail : kapcpastor@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Kim Jae Ho (646) 270 5987 / ezrakim59@hmail.com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Y. Song (818) 282.0112 E-mail : kapcpastor@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조문휘 목사
서 기 :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표와 표어를 정한대로...

하버드 대학에서 지적 능력과 학력, 환경이 비슷한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목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적인 조사

를 진행한 내용이다. 첫 조사 결과, 대상자들 중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 27%, 모호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60%, 뚜렷하고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 10%였는데 정확하게 20년 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추적한 결과들이 매우 흥미롭다.

목표가 없던 사람 27%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고, 애매 모호한 목표를 갖고 있던 60%의 사람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다. 눈 여겨 봐야 할 사람들은 단기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갖고 살았던 10%의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 있었고 그 중의 3%는 각계에서 성공한 인물들로 부각되어 있었다고 한다.

새해가 되면 목회자들도 신년도의 교회의 목표와 표어를 발표한다. 필자는 워낙 준비성이 없고 언제나 무슨 일이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성미라서 내년도 교회 표어를 거의 일년전에 정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런데 매년 5월에는 교단 총회가 열리고 신년도 달력 회사의 주문 접수가 시작되면서 굉장한 부담을 안기 시작한다. 아무런 늦어도 매년 8월말까지는 다음해의 표어를 확정하여 인쇄소에 보내야 한다. 이 고민이 매년마다 필자를 괴롭히고 있다. 여러 날, 여러 달을 고민하면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묵상하면서 심지어 다른 교회 표어들까지 검색해 가면서 다음해의 표어를 확정하여 인쇄소에 보내곤 한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선정된 목표들이 연말 결산의 때에 신기하게도 목표만큼 성취되는 것을 여러 해를 경험하곤 했다. 지난해 2020년도의 교회 표어

는 '행복한 가정과 형통한 교회'였다. 이 표어는 2019년도 8월에 인쇄소에 보낸 것이다. 그리고 작년도 첫 주일부터 '행복한 가정과 형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예배 회복'과 '일대일 자녀양육 훈련'을 강력하게 제시했다. 중직자들 가정

에서도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가정예배를 강조한 결과 코비드19이 발생한 3월부터는 사회 전반이 폐쇄되면서 오히려 먹기식으로 가정예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부모들의 직장도, 자녀들의 학교도, 심지어 교회의 예배와 자녀들의 주일 학교까지 닫힌 상황에서 가정예배를 회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일대일 양육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쁜 코비드가 우리 교회 목표를 이루는데 크게 도우미 역할을 한 셈이 되었다.

'형통한 교회'라는 표어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이 1/3로 줄어 들었지만 재정 면에서는 오히려 예년보다 흑자 결산을 이뤘다는 결산 보고를 들은 온 교우들이 감격과 감사가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로 흥분한 상황을 맞고 있다. 어떻

게 '형통한 교회'의 표어가 성취되었을까? 첫째는 코비드 상황에서도 새가족들이 증가했고, 대면예배에는 참여하지 못하 온 교우들이 실시일반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헌금 참여에 힘을 보탤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모든 기관들과 행사들이 중단됨으로 지출 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결국은 흑자가 된 셈이었다. 늘 유유부단하여 미리미리 만사를 확정하지 못하는 목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신 한 해가 되었다.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벌써부터 내년도 목표와 표어에 관심이 가는 것은 확실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주님!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붙잡고 2022년도의 목표를 향해 두 손을 모은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김진화 목사
(뉴욕미래비전교회)



20:30-31).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먼저 물어보신 것에 대해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있는 대답이 있느냐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나타남과 행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물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막11:2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 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11:23).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며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 혀에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말이 모든 환경과 나 자신까지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행하시고 이루어주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의 창고를 열게 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글자로서의 말씀이 살아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서'라고 믿음의 말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씀을 외치면 기적과 표적은 현실에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Forever(히13:8).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진행하여 가다가 홍해가 앞에 가로 막혔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출 14:15-16). '네가 명령해서 홍해를 갈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명령하면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뱅이를 보며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3:6) 믿음으로 명령하자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막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만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141:3).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자신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건네며 올 한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life9191@gmail.com

2021년 신축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새해에는 아름다운 말 생명력 있는 말을 통하여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말을 뿌려서 아름다운 삶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은혜의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사화복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책 중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느 날 저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결정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물 결정의 모습도 모두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을 얼려 결정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은 물 결정의 사진을 보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에다 대고 '사랑한다'나 '예쁘다'라는 사진을 찍으면 그 물 결정이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나타났지만, '나쁜놈', '바보' 등 나쁜 표현을 하며 찍은 물 결정사진은 흉하고 일그러져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뿐 아니라 글씨나 음악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나무에도 매일 아침 아름답고 긍정적인 표현의 말을 하면 싱싱하게 잘 자라지만 매일 아침 '빡다' '싫다'고 말하면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든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말의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이란 성대의 떨림에서 나오는 파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는 강한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 우리의 말 한 마디가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말은 보이지는 않지만, 말에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힘을, 이 말의 강한 에너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말하는 입안에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

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역사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에 대해서 깊이 있고 중요성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려내기도 하는 중요한 생명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에 따라 인생의 생사고락과 화복의 결정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현실적으로

말의 기적

마가복음 11장 23-24절



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무엇이든 지 명하시면 곧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약속과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 약속과 보장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은 성경 속에 인쇄 되어 있는 그 이상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23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1:7).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

눈앞에서 상황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은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서도 현실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 한가운데서 행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직접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고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거나 또는 심리적인 효과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전적인 동의를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 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1:20).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히 4:12).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마8:8). 주님은 그의 믿음을 말씀 들으시고 하인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또 한번은 귀신 들린 자식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마9:22)라고 불신앙의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그때에 그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얼마나 위험한가?

(3면에서 계속)

스파이크 단백질에 3가지 주요 변이가 일어났는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이크형 단백질(앞)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해 감염시킬 수 있게 만든다.

백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 있을까?

현재 백신은 초기 코로나19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백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뿐만 아니라 인체가 바이러스의 여러 부분을 공격하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백신이 여기에 맞춰 계속 재설계되고 수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변이가 잦은 독감 백신을 매해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변이 바이러스는 더 위험한가?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새로운 종들은 감

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의 방역 조치는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인가?

향후 더 많은 변종이 등장할 것이다. 세계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주시하고 있기에 새로운 변

종이 나오더라도 면밀한 연구와 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케냐의학연구소(KMR)의 연구진들은 영국과 남아공 변이 등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미 자위위 영국 백신 담당 정부차관은 "필요한 경우 또 다른 백신을 생산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역사의 두 수레바퀴

역사는 History이다. 그분의 (His) 이야기(Story)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간의 역사도 구분된다. BC와 AD로 인류사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것에 큰 의의가 없는 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은 정말 살아있는 역사의 한 부분임이 명백하다. 부모가 여차히 나쁘게 대하면 부모의 DNA를 확인하지는 것이 인생의 약함인데, 정말 참된 진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지겠는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가 함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구체화 된 최고의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기사이다.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려 세금과 병역을 위한 아주 사사로운 세상 목적을 위해 호적조사를 명령했다. 이 부분을 성경은 '그 때에'(에겐에도 데)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때가 성취되었음을 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우구스도 황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이유로 단순한 세상 속의 history에 불과한 일을 행

군생활을 시작했고, 친구는 재학 중 군대를 갔었는데 그동안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

우리가 처음 대학을 들어갔던 때는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했다. 전직 대통령부부를 구속했다는 것에서 광주항쟁의 진실들이 대학 내에 그대로 유포되던 때였다. 이곳저곳에서 민주화 운동의 연결선에서 사람이 스스로 죽기도 하고, 시위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과 시험을 거의 볼 수 없던 때였다. 동시생이 30명이었는데, 모두가 수업에 들어갔던 동기생은 다른 이들에게는 공적처럼 여겨지던 때였다. 한마디로 수업시간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 느껴지던 시기였다. 필자는 고교 선배의 영향으로 신입생 때부터 일찍 단체 학보사의 기자생활을 하였기에 이를 더 가까이 직면해볼 수 있었다.

그때 오늘 소개하는 친구에 대한 기억은 키가 크고 얼굴이 까맣고 바짝 마른 몸에 항상 잘 웃던 선한 모습이었다. 당시 동시생이 30명 정도이고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목회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왔었기에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저들 속에는 신앙과 현실사이의 고민이 깊었다. 그러한 때에 본인은 비록 학보사에 있으면서

하물며 이민 목회 20년이라면 될 더 물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의 역사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그 이후의 시간들을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었다. 재학 중에 군대를 갔던 친구는 제대 후 당시 선배 중에 목사님 아들로 우리 학과를 시위의 전면에 이끌고 있던 형을 따라 민중신학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겹쳐서 운동권에도 열심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다. 파출소를 습격하던 사건에 가담했다가 백골단에게 현장에서 잡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구속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때에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 장로님, 권사님이신 부모님의 기도의 빛이 기도 하겠지만 한달 만에 출옥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만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 기도원을 찾아가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 음성은 신학교를 가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모든 것을 순종해서 고아원의 중고등학생을 돌보는 선생님이 먼저 영혼을 섬기는 일에 헌신토록 했다는 것이다.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섬기면서 마침내 주님의

하며 가다보면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다. 참으로 인내할 수만 있다면 절로 그 때가 드러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부교역자로서의 8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다시 제주에서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한다. 제주도에 가장 처음 세워진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제주 성안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게 된 것이다. 현재도 본 교회에서 제주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전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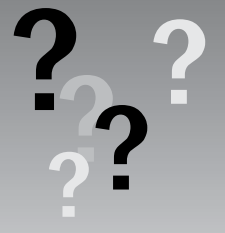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8년 전 청년들과 제주도를 향한 그 뜨거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제주도를 변화시키고자 기도의 깃발을 들었던 한사람을 제주도의 원조교회에 담임목사님으로 임명하신 것이었다.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화염병을 들었던 열혈청년을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새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32년 전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나는 대화가 어려웠다. 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거의 실물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코로나 예방주사인 미국의 백신이 짐승의 표기에 맞으면 지옥 간다고 안 맞겠다 해서 혼란에 빠진 이웃 성도가 주변에 있는데 이에 대한 목사님의 성경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LA 근교에서 김흥기 목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 책이므로 상징적인 은유가 많은 책입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오히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므로 사람들로 혼란을 주고 쉬 동심케 만듭니다(살후2:2). 질문하신 666의 표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은 계13:16의 적그리스도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처럼 경배를 받기 위해 누브갓살이나 김일성같이 미운 물건인 우상들을 만들어 사람들로 자기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매매할 수 있는 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표가 666의 표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일단 계13:15-18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거나 경제적 곤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계13:15). 실제로 과거 로마 기독교 핍박시대에 로마의 신들이나 황제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뿐 아니라 영업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백신이 666표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잘못된 이론

그러므로 현 백신이 666표라는 것은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 이유는 1)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하지 않은 교회시대이므로 계13장과는 시대적 상황(context)이 맞지 않습니다. 666표는 적그리스도 통치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일곱 머리과 10뿔을 가진(계13:1) 불법의 사람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시대가 아직은 아닙니다. 2)적그리스도의 표는 성경을 잘 알고 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계14:9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가 받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표입니다(Worship the beast and it's image and receive it's mark).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였다는 것은 "나는 짐승에게 속했다"는 표(카라그마)입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뜻으로 그 표를 받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침 받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 코로나 백신은 의료용이기에 짐승의 표라는 해석은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아마 가짜 유튜브를 보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계13장의 대 환난의 핍박의 상황(context)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백신이 나오면 제일 먼저 맞을 것입니다

3)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지 배리침이나 백신을 받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백신은 또한 verification chip(배리침, 확인칩)도 아닙니다. 단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용입니다.

4)개혁주의 신앙은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교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구원은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인내하여 결국 구원받고야 맙니다. 구원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황금체인으로 연결되어 예정-소명-칭의-영화의 단계로 갑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칭의의 은총을 받으며 칭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영화 즉 천국에서 구원을 받고야 맙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성도는 결국 영화의 단계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헬라의 부정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고 확실한 것은 과거형으로 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어 구원을 받은 성도를 마귀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롬8:38-39). 빌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주님을 만나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말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가? 가장먼저 세상을 향한 외침 앞에, 세상을 변혁시킬 힘의 원천이 나에게 없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 오직, 그분에게 답이 있다.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그가 현실의 크로노스적 세계에 간섭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듣고 주신 비전에 가슴 뜨거워하며, 무엇보다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세상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것이다.' 친구, 류정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였는데,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밤과 낮이 다른 시간을 지날지라도 멋진 이름의 정길이가 있음으로 알칸사 리틀락의 한켠 목양실에 웅크려 있는 남수의 마음은 참 행복하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 친구 류정길, 기도와 변혁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를 도구로 하나님 당신의 His Story를 시작하신 것이다.

'크로노스'라는 일상의 평범하고 반복되게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 간섭하셔서 특별한 의미가 드러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개입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신 것이다. 이처럼 아주 사소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한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다. 일상의 크로노스를 뚫고, 카이로스 개입하고 간섭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

32년전 친구와의 추억

지나해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새해 첫날 새벽에 목사가 된 옛날 친구와 오랜 시간 전화통화를 하며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보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32년 만에 전화로 첫 대화를 한 것이다. 친한 목사님이 한국으로 임지를 옮긴 후, 다니엘 특새에 간증한 것을 보기 위해 인터넷을 켜다가 비슷한 이름과 얼굴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결을 했던 것이다. 대학 동기였던 친구였다. 나는 대학을 내리 4년 마치고 간부로

도 교단 배경과 교회 분위기의 영향 탓에 그리스도인이 술 담배나 폭력적인 시위문화에 직접 가담하는 데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이론에 동의하고 동기와 선배들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나 자신이 본래부터 가고자 한 길과는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입생 환영회부터 나는 목사 되기 위해 왔노라하면서 이미 선언을 한 탓에 주의 구속도 있었던 것 같다. 당시의 기억을 모아보면 이 친구는 목사가 되고자 왔노라 선언하던 나 같은 부류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다. 후에 친구가 공적인 방송에서 간증하며 말했듯이 술 담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 전적인 나의 기억에 담긴 것이지만 술 담배를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이 친구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며 누군가 어려운 부탁이나 요청을 하면 쉽게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돌아보는 손해 보기 좋아하는 착한 학생으로 기억이 된다.

나의 기억은 거기까지가 끝이었다. 나는 한 학기 과정을 빨리 마치고 기도원에 들어가 대학원 준비를 했고 후에 대학원입학 후에는 다시 군대를 가야했기에 거기까지가 이 친구에 대한 기억의 전부였고 그 후 그 바쁜 한국의 신대원 M.Div 생활과 강도사 사역, 그 후 미국에 와서 20년을 지냈으니 정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당연했는지 모른다.

인도를 체험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역시 반듯이 없음을 본다. 후에 그가 청년사역을 힘 있게 감당하는 배경에도 이런 준비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 주안에서 우리 인생의 조각들은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제주도를 위한 사역

그렇게 신학교를 마치고 서울에서 사역을 하던 중 제주도 영락교회 청년부 사역자로 청빙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제주도에 대한 비전을 두고 먼저 기도하도록 자신을 이끄시더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왜 너는 가만히 있거니와 나는 책망과 함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주도를 국제선교도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청년들과 열정을 가지고 제주도를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릴 듯이 열정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제주도에 두지 않으시고 이제 또 다른 부르심을 좇아 서울의 두레교회로 가게하시더라는 것이다. 분명히 제주도를 위한 기도였는데, 자신을 왜 옮기시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잡히지 주의 일에 순종 혹은 복종

런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 장구하고 사적인 것 같은 친구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 이유이다.

세상을 이길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사람들은 옳은 생각,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옳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진보적이거나 좌파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옳은 말만을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머무는 곳을 보면 과거 학생 때의 경험이나 현재적 사회현실을 보아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본다.

생각은 옳은데 그들의 그 옳음이 교만이 되어 그들이 가진 자세와 태도, 다시 말하면 분란과 분열적인 행태를 늘 가져오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세련된 좌파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보여주는 진보적 좌파들의 행태를 볼 때도, 타락의 정도는 오히려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보다 더 할 수 있음도 짐작해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저들이 가진 당파적 관점의 어떤 경향성보다 인간이 원죄인(原罪人)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동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오직 그분에게 답이 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죄인됨의 겸손함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마크-하자라족(AIMAQ HAZARA)

아이마크-하자라족은 아프가니스탄의 중부 산지에 거주하는 소수종족이다. 이들은 8개의 부족들 중 하나이자 아프가니스탄과 북부 이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차르 아이마크(Char Aimaq)족에 속한다. 이들 부족 모두는 아이마크(Aimaq) 언어를 사용한다. 이 언어는 페르시아어에 속하지만 튀르크어(turkic) 어휘를 사용한다. 수년 동안 차르 아이마크 부족은 여러 정부에 의해 이주하면서 흩어지고 합쳐지곤 했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반유목민적(semi-nomadic)으로 살아가는 부족으로 바위투성이 산지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다닌다. 이들은 무역로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지역에 거주한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차르 아이마크족들은 혼합된 유산을 남겼다. 이들 중 대부분은 소련의 침공시에 또한 잇따른 내전에서 아주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삶의 모습

한때 아이마크-하자라족은

완전한 유목민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정 계절에만 이동하는 반유목민이다. 많은 아이마크-하자라 유목민들은 가뭄과 부식으로 인해(erosion)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농부로 전업했다. 이들은 원시적인 팥과 나무 쟁기로 밀, 포도, 쌀, 보리, 귀리(oats), 멜론 그리고 야채 등을 재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이들의 문화에 있어서 부업으로 여겨지며 한 사람의 재산은 그가 소유한 가족의 양으로 결정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고기와 우유, 지방과 치즈를 제공하는 가족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동물의 가족은 또한 천막을 만든 데 이용된다. 농사를 짓는 동안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마을의 돌집에서 거주하며 가족 떼들을 계속 남겨놓고 모아 놓은 곡식을 먹인다. 봄과 여름

에 이들은 산지를 다니면서 천막에서 거주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사회는 가장적(patriarchal, male-dominated, 남성중심적)이면서 부계(patrilinal, tracing ancestral descent through the males, 남성을 통해 조상의 계가 이어지는)사회이다. 이들의 핵가족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대개 남자와 부모, 부인 혹은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로 이뤄진다. 젊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남편가족의 일 부분이 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에서의 정체성은 가족과 씨족에 기초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여자는 가족 때 돌보기를 돕기도 하지만 이들의 주된 업무는 카페트를 짜는 것이다. 각 부족 혹은 마을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로 전수되는 그들의 유일한

패턴이 있다. 식량이 부족할 때는 카페트 장사로 벌어들인 돈이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유일한 생존수단이 되기도 한다. 카페트는 가족, 현금과 함께 결혼 지침금으로도 사용된다.

신앙

아이마크-하자라족은 헌신적인 무슬림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신앙을 이슬람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믿는 하나피 분파에 속한다. 이들의 강한 이슬람 신앙은 종종 기독교가 유일신관을 훼손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많은 무슬림들은 꾸란에 인용된 구약의 이야기들에 친숙하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영적 혈통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라고 주장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시기와 그 이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자유의 전사"들을 위해 군사적인 지원을 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정치적 전쟁과 인권침해로 분투하고 있어서 그 지원은 중단됐다. 전 국토가 소련과의 전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모든 마을은 파괴됐고 식량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다. 안전한 식수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어떤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지속되고 있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먼 거리에 널리 퍼져있음으로 인해 복음을 듣기가 어렵다. 현재 아이마크-하자라족에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낙태..."

"당신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단연코 낙태 찬성론자(프로 초이스)일 수 없습니다."



앨버트 모홀러 미국 남침례교신학대 총장이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지아주 첫 흑인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라파엘 위녹 에틀랜드 에벤에셀 침례교회 목사의 발언을 지적하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위녹 목사는 지난달 팔로워 50만명이 넘는 자신의 SNS 계정에 '난 낙태를 찬성하는 목회자'라는 글을 올리고 성경을 이용해 낙태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에 휩싸였다. 모홀러 목사는 "종교인들이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적어도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럴 수 없다"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비롯한 모든 삶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지키는 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약 성경이 낙태권을 지지한다는 신학자들의 주장은 잘못"이라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태어난 사람보다 덜 신성하다고 인식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기 기독교 문헌인 디다케를 인용하며 "기독교는 처음부터 낙태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디다케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으로 '두 길'(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소개하고 있다. 두 길 중 생명의 길을 명시한 제2장 2항에서 '낙태로 아이를 죽이지 말라. 유아를 살해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모홀러 목사는 "과거 로마 제국에서 낙태와 유아살해 모두 흔한 일이었지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는 건 금지된 일이었으며, 디다케는 '생명의 길'이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클레멘트, 테르툴리안 등 낙태에 반대했던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언급하며 낙태의 죄성을 지적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부유한 계층이 성적 몰락으로 인한 부도덕성을 은폐하기 위해 독극물로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낙태가 인간의 감정까지 죽이는 죄라고 꼬집었습니다. 테르툴리안은 인간에게 태아의 생명을 파괴할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출산을 방해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역설했습니다."

모홀러 목사는 "이 시대 기독교인은 1973년 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뒤 미국 교회가 친생명적 목소리로 결집됐던 것을 알아야 한다"며 "태아가 신의 창조물이라는 점, 낙태는 살인이라는 점,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범한 이들을 향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프랭클린 그레함, '트럼프 탄핵동참' ...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공화당 의원들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레함 목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럽다. 여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에 동조한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작심 비판했다. 그레함 목사는 "미국을 위한 대통령의 모든

업적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고 배신할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고용, 세금, 중국 및 중동 등 트럼프의 핵심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찬사를 보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과 실업률은 낮추고, 튼튼한 경제를 만들었다. 나토(NATO)에 주목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 또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만날 배정이 있었다. 또 중국이 우리를 호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지난 2달간 중동 평화계획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그는 이전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 종교 자유를 수호하고 신앙인들의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또 가장 친생명(pro-life)적인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는 그를 증오하기 때문이다. 탄핵에 동참한 공화당 의원들은 광란에 동참한 것"이라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 배신에 대가로 약속한 30년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트럼프를 30년에 팔린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한 것은 잘못"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나라를 더욱 분열시킬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말과 행동 중 일부는 지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1월 6일은 그의 대통령직에서 저점이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레함 목사는 "우리는 지난 2016년 그가 공직에 출마했을 때부터 그에게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저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그가 약속한 정책과 플랫폼 때문에 그를 뽑았고, 난 여전히 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취임한 날부터 그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들이 어제 한 일은 우리나라를 더욱 분열시킬 뿐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그의 말처럼 약속을 지키고 통합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미 보수단체 가족연구위원회(FRC) 토니 퍼킨스 회장도 탄핵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다.

"코로나19 백신 95% 10개국에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세계에 지금까지 공급된 코로나19 백신 2350만 회분 중 95%가 10개국에만 배분됐다고 비판했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이 현지시각으로 15일 전했다. 이는 형편이 되는 회원국은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으로 추산됐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담당 국장은 1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백신이 저소득국가나 가난한 국가 등에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국가도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WHO가 참여 중인 코백스(Covax) 협동조합은 모든 국가에 백신이 배분되도록 노력 중이라면서, 공헌이 가능한 모든

국가가 백신 기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백스 협동조합의 목표는 전세계 92개 최빈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다.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는 게 WHO의 분석이다. 이는 영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출현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클루게 국장은 "격정스러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유럽에서는 현재 31개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했다. 코백스 협동조합의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은 내달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음성 확인증, 제2 여권되나...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소지해야만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한국도 적용 대상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CNN방송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 조치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항공편 승객들은 출발 전 3일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시 제시해야 한다.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했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또 승객들은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 머물 것을 CDC는 권고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여권이 되지 않는 국가에서 오는 승객에 대해서는 일시적 면제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다른 조치들과 결합하면 기내와 공항에서 확산을 줄임으로써 더 안전한 여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는 "미국 입국 조건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요구하기 위해선 승객들이 감염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항공사들의 이익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의 닉 캘리오 대표는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검진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도 미국행 승객은 검진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폭증하면서 이를 전면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스홉킨스대가 이날 오후 8시30분을 기준으로 집계한 미국의 24시간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447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일랜드도 이날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까지 9만3000명 수준이던 아일랜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열흘 만에 15만명으로 늘었다. 영국 육상국경에 집계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인구 100만명당 감염자 수는 128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캐나다도 최근 캐나다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트럼프 4년에... '유럽우선주의' 검토

높은 대미 의존도가 유럽을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럽연합(EU)이 '유럽 우선주의'를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간 펼쳐온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시달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EU 내부 문건 초안에 따르면 EU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유럽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보호주의 노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친 자국 우선주의가 미국과 달러의 패권화를 불러와 유럽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아시아 등 지구촌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돼 미국에서 파생된 조그마한 불안정성에도 세계 경제가 함께 흔들린다는 것이다.

EU는 특히 이란 제재 등 미국의 '불법적이고 주권 침해적인 정책'으로 유럽의 입지가 난감해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이란을 제재하는 바람에 유럽이 이슬람 국가들과 합법적인 무역을 하고 있음에도 대금 지불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EU는 유럽이 주도하는 금융시장 인프라가 타국의 제재 정책에 의해 영향받을 경우 회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높은 대미 의존도라는) 약점을 아주 잘 드러냈다"면서 "그가 없어졌더라도 우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다져야 한다. EU의 크기에 걸맞은 경제적, 재정적 힘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건에서는 EU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해 회원국의 경제적 자립도를 키운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달러의 강-약세에 크게 영향 받는 크루드 오일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자립성 강화 수단으로 제시됐다.

FT는 "EU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미·EU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숴놓은 국제규범을 발판 삼아 금융과 경제 등 영역에서 자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라스틱에 쓰레기섬 된 발리

세계적인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섬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 몸살을 앓고 있다.



발리섬 바둥군 환경위생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이틀에 걸쳐 발리섬 쿠타, 르기안, 스미낙 해변에서 플라스틱 90t을 수거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일 보도했다.

지난 3일 폭우가 지나간 후 꾸따 해변은 쓰레기들이 또다시 유입됐다. 문손 기후 영향으로 매년 우기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감수량이 많아지고 바람이 세지면 쓰레기가 무서운 속도로 쌓이고 있다.

환경위생국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1일에만 30t을 치웠고, 2일 수거한 쓰레기는 두 배 증가한 60t에 달했다"며 "매일 해변 정화에 힘쓰고 있지만 쓰레기가 계속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의 테니즈 하디스티 박사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디스티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가 계속 증가했다"며 "인도네시아의 다른 해변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서 원격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을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인도네시아 쓰레기 처리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발리 우다야나 대 해양과학센터 소장인 게데 헨드라완 박사는 "가장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라며 "시스템을 손보기 시작하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우는 일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다. 성도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가치를 바르게 전달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교회교육이라 할 때, 어린 학생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육에 국한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성인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에도 열심을 다해야 한다.

현재 각 교회마다 주중에 성경반, 교리반, 제자훈련반 등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전도훈련, 중보기도, 선교훈련 등 필요에 따라 특별한 목적으로 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구역모임도 성경을 교육하는 형식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수께서 친히 삼으셨던 교육의 목적은 성숙과 변화였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통해 얼마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교육이 지식 전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한국인들과 익숙해진 고유의 교육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식의 교육이 시작되기 전, 조선에는 서당을 통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구한말 개화기를 맞아 1895년에 '소학교령'을 공포하여 초등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놓게 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 후 일제는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부르다가 다시 1938년에 소학교로 변경한 뒤, 1941년에는 민족 말살정책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국민학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서당의 교육 방법은 어떠한가? 서당 공부하는 글을 읽고 쓰고 글짓기를

포함하였지만, 주로 글을 소리 높여 읽는 것에 집중하였다. 즉 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암송할 때까지 수차례 반복해서 읽는 것이 주를 이뤘던 것이다. 즉 서당교육의 목적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아는 것이었다.

주입식 교육

현재 교회교육은 학교에서 시행되는 방법과 유사하게 주입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교교육은 많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교사와 교과서 중심으로 이뤄진다.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보다 진도에 맞추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물론 교회교육이 학교교육과 근본

교회교육이 학교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에서 유일한 기독교의 진리를 다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을 받는 성도들은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간혹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지도자에게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잘못된 경우가 있다.

진리 교육

얼마 전부터 한국의 학교교육에 변화가 찾아왔다.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교육형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생겨났다. 개인의 능력을 고려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한 양의 학습량을 소화할 수 없고,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 수업 참여를 기대할

중세 대학은 기본학문을 가르치는 교양학과 교양학부 졸업생이 진학하는 상급학부인 신학부, 의학부, 그리고 법학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문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교양학부에서는 '3학'과 '4과'를 통해 학문적 소양을 넓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3학'에는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 '4과'에는 산수, 기하학, 천문, 음악이 포함되었다.

14-15세기에 아비뇽 유수와 대분열 기간을 걸치면서 교황청의 세력이 약화되고 대학이 세속 군주들 또는 지방 유력자들의 지배권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던 중세 대학 안에서 행해졌던 전통적 교

르치는 일에 집중해온 것이다.

실용주의

미국의 교육자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가 경험적 상대주의에 입각한 실용적 교육방식을 소개하면서 전통적 교육철학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교육은 반드시 교사나 교과서가 아닌 학생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필요에 의해 교육의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며, 암기위주의 방식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듀이의 진보적 교육사상에 맞서서 교육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대두되었다. 본질주의는 학생의 흥미는 따라가면서 체계적 교과를 통해 기본적 습을 숙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존주의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인간의 이성 도야를 목적으로 공리주의로 타락한 교육을 개혁하려 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미국교회로부터 시작된 실용주의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삶에 유익이 되는 실재적인 것을 강조하는 모습에 잘 나타나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일보다, 설교와 성경공부 그리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주로 '삶의 방법론'에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회 교육

교회교육은 이원론에 입각하여 양극단에 빠질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사변적인 진리를 주입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처세술 강의와 유사한 내용에 집중하여 복음을 사적인 영역으로 추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진리습득을 통한 성숙과 변화가 교회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교육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결코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취할 수 없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27)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14)-교회 교육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회 교육의 목적은 진리습득 통한 성숙과 변화 전통적 서구 교육방식은 진리에 대한 절대성 가르치는 일 한국교회, 미국실용주의교육 영향으로 삶의 방법론에 집중

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무엇보다 학교는 성적이란 도구를 통해 학생들이 반드시 공부하도록 만든다. 수업시간에 교사의 가르침에 집중하거나 공상할 수 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암기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된다.

교회교육은 감압적이지 않다. 가르친 내용을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시험과 성적제도를 도입한다면, 자발적으로 교회교육에 응할 성도가 그리 많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은 학교보다 더욱 주입식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예배시간 이외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공부에 참여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지닌 의미가 크다.

수 없는 현실을 파악한 것이다. 그 결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개방형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교육제도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현상은 이미 과거 서구역사에 드러난바 예상되었던 변화라는 것이다.

학교와 교회에서 시행되는 주입식 교육은 중세이후 서구에서 실시되어 온 전통교육방식이라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문적 기본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에 충실하려 했던 것이다. 나아가서 일단 지적도대가 세워진 후에 개인의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는 전문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유철학은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 중심에는 중세시대 학자들에 의해 강하게 대립되었던 '관념론(Idealism)'과 '실재론(Realism)'이 있었다.

'관념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며, 강압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며 인간성 안에 깃든 좋은 것을 끄집어내고 완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실재론'은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학문적 기본훈련을 중시하며, 학생들에게 전문가들이 연구해놓은 지식의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지적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Langone Health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유럽 \$240, 남미 \$240, 아프리카 \$240

리더십 코멘터리 (127)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라

비웃을 정도의 큰 비전을 소유하라

미국 하버드대학 리더십연구센터에서 미국의 CEO 가운데 광복할만한 발전과 성공을 거듭한 150명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에게서 3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하나님을 최고의 경영자로 모신 것이고, 둘째는 주변사람들이 비웃을 정도의 큰 비전을 소유했으며, 셋째는 끝까지 일을 마치고 결실을 맺는 끈기와 인내심을 가진 것이었다. 비웃을 정도의 큰 비전을 소유하라. 비전의 힘은 엄청난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비전을 통해 기대이상의 성장과 부흥을 맛볼 수 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이지만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부흥을 위해 존재하는 '바로 그 리더'가 되는 것이다. 비전을 설정하면 가슴이 뜨거운 존재, 열정의 샘이 터진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리더가 된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세상이 비웃을 정도의 큰 비전과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을 위해 살기를 바란다.

새해를 맞는 영적리더

많은 사람들은 영적리더의 삶에 대해 궁금해 하며 리더의 신앙생활이 거의 완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리더의 삶은 신앙의 규칙을 지켜 만족함을 얻고 안도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삶을 나누는 것이다. 영적리더는 다음과 같은 특

신년에 갖춰야 할 8가지 리더십의 원리

새해를 맞아 리더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한 해의 목표와 결심을 세우는 것이다. 새해 결심을 세우고 있는 리더들에게 신년에 갖춰야 할 8가지 리더십의 원리를 제시한다.

①영향력이 리더십의 중심이 되게 하라. 자신이 특정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해도 걱정하지 말라, 아직 당신에게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은 훌륭한 성품을 갖추고 결심한 바를 실천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생긴다.

②예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라. 리더를 향한 비판이 때로는 거세질 때가 있고 이 때 굴복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더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비판에 굴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③리더의 공간으로 초대하라. 투명성은 자신의 문제나 기분을 반드시 타인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타인에게 솔직해지고, 그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리더의 공간으로 초대하라는 것이다. 겸손히 나를 드러내는 것은 성령께서 변화의 사역을 하시도록 초대하는 것과 같다.

④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라. 행동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사람들은 리더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된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그들도 리더를 따라 한다는 것이다.

야망과 비전 구별...큰 비전 갖고 예수 성품 닮아가는 영적 리더로 영향력, 성령 듣기, 행동으로 증명, 사람중시, 자신돌보기, 균형유지

주시고, 비전을 가진 리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비전(vision)이란 무엇인가? 비전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신 나를 향한 계획이다. 피조물인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mission)이다. 이것을 실행가능하게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꿈(dream)이다. 이 비전과 꿈은 인생의 방향성이며, 열정의 샘이고, 하나님의 복을 담은 축복의 그릇이다.

리더가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비전이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비전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에 소원의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ambition)이다.

영적리더는 비전과 꿈을 설정한 후 매일 기도하며 외쳐야 한다. 다시 일어나 또 한 번 부흥을 노래하려면 비전을 점검하고 심혈을 기울여 비전을 재설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비전이 없으면 생존을 위해 그냥 살아가는 존재

를 갖는다.

①영적리더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예수의 운용함을 닮아가는 사람은 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축복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균형 잡힌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음에 틀림없다.

②영적리더는 성령의 사람들이다. 영적리더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③영적인 리더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타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추구하는 영적리더는 위엄과 군림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타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걸어야 할 삶의 길이기 때문이다.

⑤성과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라. 사역 현장에서는 많은 성과를 내는 데 집착하게 된다. 할 일은 많고 모든 일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 리더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는 쌓여간다. 성과를 내려야 한다는 사람들을 선택하라.

⑥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비전을 세우되 모두가 이 비전을 위해 삶을 헌신하게끔 해야 한다.

⑦자신을 잘 돌보라.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리더가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기를 원치 않으신다. 리더의 삶이 정서적으로 황폐해졌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여러 가지 중독 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는 제대로 쉬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⑧균형을 유지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라. 이 균형을 찾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괜찮아? It's OK!"

"그러면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구절과 찬송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부부의 첫 담임목회 사역을 위한 인터뷰에서, 미네소타 북옥연합감리교회 권사님께 받은 첫 질문이다. 3시간여에 걸친 목회 협조위원들과의 대부분 시간은 새 담임목사가 될 수 있는 남편을 향한 질문과 대화였고, 미팅을 마무리 하는 나머지 30여분은 나와 우리 부부가 함께 하는 질문들과 대화로 이어졌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깐 당황했지만, 나의 대답은 빠르고 분명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 23장 1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삶에서,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두고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두려운 마음이 클 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구 찬송가 495장 찬송가 438장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가장 즐겨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한 달 후 우리는 그곳에서 특별사택예배로 새 교회의 사역을 시작했다.

벌써 11년 전 일이다. 그 사이 남편은 버지니아연회로 연회를 옮겼고, 이제 우리 부부는 한인미교교회보다 미국교회중교회 사역의 연수가 더 많아졌다.

누군가 모임에서 "저는 인생에 단 한 번도 어려움 없이 너무나 꽃길만 걸은 인생이었어요"라고 얘기한다면, '당신의 그 꽃길인생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지금 우리가 가시밭길이지' 하고 모두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그런 삶이 있다면 정말 축복하고 축하해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본인이 직접, 혹은 자신의 가족, 친구, 동료, 교수... 등 간접적 관계들의 인생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며 다시 일어서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리고 수많은 성경인물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체험했기 때문이다.

2021년 새해가 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았고, 백신의 접종과 바이러스치료는 느리기만 한 것 같다. 우리를 더 절망적이게 만드는 변종 바이러스의 소식은 고통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다. 새해의 기쁨과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걱정,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절망, 한숨만 늘어간다. 가장 두렵고, 슬픈 일은 이 불안정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삶의 하드웨어인 사회, 경제, 교회, 학업, 건강 뿐 아니라 우리의 소프트웨어인 감정, 정서, 정신, 영혼을 더 빠르게 무너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녀를 키우며,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 당연히 "사랑한다" 일 것이다. 하지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아이들은 항상 실수와 사고투성이이고, 반복되는 실수와 사고를 통해 배우고 자라기 때문이다. 아이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일 때 엄마는 물어보고, 아이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할 때 대답해준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쉽게 듣지 못한다. 나의 실수와 잘못이 잦아질수록 내가 능력부족자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나의 어떤 모습과 상황 속에서도 끊임 없이 그리고 끝까지 "괜찮아? It's OK!" 하고 사랑으로 말해주는 분이 계시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새해, 우리가 주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이 시간을 함께 지나가길 소망한다. "괜찮아? It's OK!"

songjeungi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g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영양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39-06-043-8076(교우관)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윤진석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영양예배: 오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043-80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6:00(매일)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세례1부예배: 오전 5:00 세례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6-8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9-9068, Fax. 38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p>	<p>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신사동 137 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세례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2)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매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2-1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www.esincheon.org</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병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시 이천읍 302-67 (140-031) www.anamjeil.or.kr</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세례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세례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1942-6881, Fax. (02)1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02)3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세례기도회: 새벽 5:30 Tel. (82)2-793-7740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천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여호와와 얼굴을 구하라

지금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2300만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38만명이 넘었으나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장궤하고 있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흡사한 일이 다윗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하루 7만명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 주실 것을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번제를 드리라는 명을 내리자, 다윗은 즉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

라가 눈물의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떨어지고 사무엘하 24:25에는 창궤했던 전염병이 즉시 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파탄의 문제가 해결되며 텅 빈 예배당이 다시 성도들의 뜨거운 감격의 예배로 채워지고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는 생명의 계절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우리가 마음에 베옷을 입고 여호와와 얼굴을 구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1517년 말틴 루터(Martin Luther)가 독일에서 종교개혁

을 일으킨 후 1529년에 쾰빙글리(Zwingli)가 스위스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취리히에 갑자기 전염병 페스트가 창궤하기 시작해서 시민들의 절반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쾰빙글리는 과로로 지쳐서 취리히에서 180킬로미터 떨어진 온천에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쾰빙글리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취리히로 돌아왔습니다. 가보니 시장과 직원들 그리고 부자들과 지방 유지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쾰빙글리는 즉시 성도들을 모아 중보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시체를 장례 치러주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찾아 치료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쾰빙글리도 그만 페스트에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쾰빙글리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쓰시는 그릇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 죽음의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눈물로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쾰빙글리는 더욱 담대하여 종교개혁 운동에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역대하 7:12-14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때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찌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창궤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책은 쾰빙글리처럼 오직 여호와와 얼굴을 구하는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을 보면 한사람의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한 도시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한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소돔성이 불에 탈 때 롯의 가족들을 그 위경에서 건지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9:4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 남은 자들은 심판하셨던 하나님

이십니다. 놀랍게도 그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며 장로들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영광도 먼저 오지만 책임도 먼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창궤한 코로나 팬데믹 재앙이 모두 "나의 기도하지 못한 죄요, 불의를 대항해서 싸우지 못한 죄, 가증한 죄악을 보고도 침묵한 죄임을" 가슴 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고 하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시50:15)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의 예배와 회개의 기도를 다윗처럼 올려드릴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창궤한 전염병이 즉시 그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필라안디옥교회 스페니쉬교회 1호 중남미 교회개혁 순회선교사 파송식을 가졌다.

"기쁜 소식의 전파자로 살라"

필라안디옥교회 신년축복성회 및 세계선교사명자 대회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는 1월 8일 저녁부터 12일까지 신년축복성회 및 제23차 세계선교사명자 대회를 가졌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진행된 이번 성회는 "기쁜 소식의 전파자로 살라"라는 주제로 안디옥 다섯 교회(한어교회, 영어교회, 스페니쉬 교회, 다민족교회, 시티교회)와 차세대 교육부가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한어교회 선교대회 주강사로 섬긴 호성기 목사는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서 부름 받았으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안디옥 영어교회와 스페니쉬교회, 다민족교회와 시티교회는, 각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선교지의 소식을 들었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헌금 작성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대회 마지막 날에는 안디옥 스페니쉬교회를 10년 동안 here and now 선교사로 섬긴 김종상 안수집사와 이은송 권사를 스페니쉬교회 1호 중남미 교회개혁 순회선교사로 파송하는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다.

올해 직접 선교지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다섯 교회 성도들은 국내외 17개의

선교팀과 Here & Now 10개 선교팀, 총 27개 팀을 결성했다.

각 선교팀은 선교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온라인 기도회를 갖고, 기도회에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실제적인 필요를 선교헌금을 통해 채울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교육부 각 부서가 후원 선교지를 하나씩 선정하고 매달 선교주일마다 모든 자녀들이 선교헌금에 동참함으로써 어린이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갈 예정이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평양 114주년 기념대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4개 단체 공동 평양대부흥 제114주년 기념대회

1907년 1월 14일 평양대부흥 제 114주년 기념대회가 '세

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New Life World Mission' '미주한인

장동신 전 뉴저지교협회장 감사패 받아

전 뉴저지교협회장 장동신 목사가 뉴저지한인회 손환익 회장으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월 18일 오전 11시 30분에 뉴저지한인회관에서 거행된 감사패 증정식에서 손환익 회장은 장동신 목사가 "뉴저지교협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뉴저지한인회에 보내준 협조에 20만 뉴저지 거주 한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감사패를 받은 장동신 목사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감사

패를 받게 돼 감사하다. 초유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뉴저지한인회를 중심으로 뉴저지교협을 비롯한 여러 한인봉사단체들이 힘을 합쳐 뉴저지 한인동포들을 도울 수 있어 감사했고 큰 보람이 있었다"며 뉴저지한인회와 여러 봉사단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팬데믹의 극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뉴저지의 한인봉사단체들은 뉴저지한인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았다. 뉴저지한인회가 앞장을 섰고, 뉴저지교협

과 뉴저지목사회를 비롯한 여러 봉사 단체들이 힘을 보탤다.

뉴저지한인회를 비롯한 뉴저지 한인봉사단체들은 설을 앞두고 500명의 한인들에게 떡국용 떡과 소스를 나눠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 (기사제공: 뉴저지한인회)



왼쪽부터 뉴저지교협 전 회장 장동신 목사, 뉴저지한인회 손환익 회장.

재단(LA), '미주정치인 후원회(PAC)' 등 4개 단체 공동 주최로 14일 오전 10시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열렸다.

샘신 목사의 사회로 드러진 1부 기념예배는 김영구 목사 기도, 한기형 목사가 설교했다. 한기형 목사(하늘문교회 담임)는 "성령을 받으라"(요 20:21-22)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백지영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김영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2부 기념대회에서 김은목 목사(뉴라이프미션센터 대표)가 기도하고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LA회장)의 기념사가 있던 뒤 광욱씨가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다.

이날 김영구 목사는 평양대부흥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그레이스송 권사(3.1여성동지회 회장)가 회개 기도문을 낭독한 뒤 이철민 목사(세기모 미서부 자문위원), 조순환 장로(이북5도민회 상임고문), 공선화 선교사(아프리카 말라위)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각각 대표로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이성자 기자)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Includes a diagram showing how symbols like 'VOL.1', a star, and a crescent moon are used on t-shirts. Below are images of green, black, white, and red t-shirts. Text: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and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동부교계 기사판

동부개혁장신 2021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동부개혁장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2021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신학교로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고졸, 4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기독교교육학, 선교학(대졸 2년) △여교역학과(고졸, 3년)이며 서류는 입학원서 1부, 목사추천서 1부,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1부, 신앙고백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입학전형료 30달러가 필요하다. 원서접수 마감은 1월 29일(금) 오후 6시, 입학시험은 30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한편 개강부흥회는 2월 1일(월)부터 3일(수) 저녁 7시45분에 있다.

▲문의: (718)463-7163

'Zoom으로 만나는 Teen Prasso Course'

낯은올다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Zoom으로 만나는 Teen Prasso Course'가 1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미주동부시간) 8주간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6-12학년, 영어로 진행되며 등록비는 80달러(교재비 20달러 별도) 입금자에게 교재를 미리 우송한다.

▲문의: (646)300-4790 woollarius@gmail.com

EM 담당 파트타임 사역자 청빙

뉴욕기독교교회(NY Pillar Church)에서 EM 담당 파트타임 사역자를 찾는다. 사역대상은 EM Young Adult & Adult로 자격은 정규 신학교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 사역에 대한 열정과 한영 이중언어 가능. 제출서류는 이력서(Resume), 신앙간증서(Personal Life Testimony), 설교영상(A link to a recent sermon video, A script or a recorded file is ok too) 등이다. 서류는 Samuelkang2@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718)343-1593

행사 일정 발표, 3개 조사위 구성

뉴욕목사회 49회기 첫 임실행위원회

뉴욕목사회 제 49회기 첫 임실행위원회가 1월 14일 오전 10시30분 뉴욕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1부 예배에 이어 2부 회무를 시작하며 회장 김진화 목사는 "목사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묵상하며 거룩과 화평을 모토로 정했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웃에 대해 화평함으로 1년 임기를 잘 섬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뉴욕목사회 49회기 첫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목사회는 이날 49회기 행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3월 28일(주): 신년기도회/나사렛기도원 △7월 5일(월): 영성세미나(원문성경의 종말론) △8월 30일(월): 2차 임실행위원회/새침교회, 야외 친목회/알리폰드교 △9월 13일(월)-17일(금): 통일기도회/한국방문, 판문점, 성지순례 △1월 7일(목): 사도위교회/힐링투어 △11월 29일(월) 정기총회.

이외 신년준비기도회 보고에서 위원장 이성현 목사는 "방역문제로 3월말로 예정했으나 교단(나사렛) 측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 그 전이라도 일정을 조정해보겠다"며 "1박2일 금식기도원 사용료가 1인당 40달러지만 회원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계 임태현 목사가 보고한 인수인계 결산보고에서 전 임원단의 거센 항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말을 조사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또 김재호 목사 사도신경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유상열, 박진하, 김용익, 임병남, 김명옥, 장규준 이상 목사)는 총회 결의사항으로 지속하기로 했다.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신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김영환 목사 송별회도 겸해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신년기도회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2021년 신년기도회가 1월 12일 오전 뉴욕마하나님선교교회(담임 박준수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총무 신은철 목사 인도로 박진하 목사(퀸즈침례교회)가 "들음 줄 아는 믿음"(롬10:16-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진하 목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셨다. 팬데믹으로 어렵다고 실망하지 말라. 우리들은 들을 수 없는 가운데 들도록 하기위해 세움을 받았다. 그 일에만 열중하라.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부수적인 것 때문에 망가지면 안된다. 언제 설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목회자로 남기 원한다"라며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라고 말했다.

2부는 신년을 맞아 통상 월례회에서 진행되는 회무대신 기도회로 진행됐다. 먼저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해 달라고 부르짖고 교회를 위한 기도로 이어졌다. 세밀하게 5개 교회씩 3번에 나누어 합심 기도를 한 후 노기승 목사, 김레너드 목사, 김재용 목사가 축

복하는 마무리 기도를 했다.

이어 △총회와 지역 및 뉴욕 지방회를 위해 이다니엘 목사가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앞둔 미국, 어려운 경제 정치상황에 처한 한국, 팬데믹으로 어려운 세계를 위해 메트로폴리탄 지방회 루스 목사가 마무리 기도를 인도했다.

3부는 달라스로 사역지를 옮기는 효성교회 김영환 목사의 송별회가 진행됐다.

지방회를 대표해 박준수 목사가 송별 및 선교비를 김영환 목사에게 전달했으며 박진하 목사가 축복 및 파송기도를 했다.

김영환 목사는 2001년 뉴욕 효성교회를 개척하고 20년간 목회했다. 또 뉴욕병원선교회를 통해 환자와 노인들을 돌보는 사역도 했다. 교계적으로는 2009년 뉴욕전도협회 회장 겸 뉴욕신학교 학장, 2015년 뉴욕목사회 회장, 2016년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목사는 달라스로 이주한 뒤 '달라스효성교회'와 '사립나눔선교회'로 사역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정리: 유원정 기자)

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총회 결의사항인 김재호 목사건은 조사위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당일 김재호 목사가 제기한 이준성 목사 선거관련 부정은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해 차후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유태용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 김정길 목사, 기도 박준열 목사, 성경봉독 심화자 목사, 특수 안경순 목사, 말씀 이성현 목사, 합심기도 정인수 목사(나사렛)와 민족을 위하여) 장규준 목사(뉴욕한인사회를 위하여) 김희숙 목사(뉴욕교계를 위하여) 김정숙 목사(뉴욕목사회 연중행사를 위하여), 축도 김용익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성현 목사(뉴욕 행복한국회)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전16:15-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갖고 세운 고린도교회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문제의 중심은 인간중심으로 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사로 부름 받고 갈 때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은 부르신 대로 목적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첫째, 초심을 잃지 않고 섬기면서 살고 있는가? 둘째, 부족한 말씀을 잘 보충해주었나? 셋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나?"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 주 앞에서는 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 목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100인설교집 출판 접수를 받고 있다. 최종마감일은 2월 27일. 원고를 life9191@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유원정 기자)



대한민국가조찬기도회뉴욕지회 2차 임원회가 줌으로 진행됐다.

이취임식 2월 6일 뉴욕그레이트넥교회

대한민국가조찬기도회뉴욕지회 2차 임원회

대한민국가조찬기도회뉴욕지회(회장 손성대 장로)는 1월 17일 오후 6시 줌으로 2차 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취임식은 2월 6일(토) 오전 8시 뉴욕그레이트넥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갖는다. 뉴욕 뉴저지 교계 지도자들과 임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한다(단비TV 실황중계).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한 1분 기도를 임원들이 방송을 통해 한다. 임원 월례기도회는 화상으로 한다.

이날 임원회는 부회장 김태수 목사 사회로 명예회장 강현석 장로의 인사에 이어 손성대 장로가 경과 보고했으며 합심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한 후 부회장 마바울 목사가 마무리 및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행사준비위원장은 박용기 장로가 선임됐다.

(기사제공: 대한민국가조찬기도회뉴욕지회)

뉴욕나눔의집에 쉼터건립 후원금 전달

노숙인 쉼터 건립 모금 중에 있는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손옥아 손성대 장로(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장) 부부가 후원금 1000달러를 전

달했다. 또 지난 6일에는 뉴욕그레이트넥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후원금 1000달러를 전달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아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령강론: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유아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창립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8:15 3부 오전 10: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별세예배: 화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30분) 주일2부 오후 1:45(50분) 주일학교: 오후 3:45(20분) 청년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 저녁 9:00 주일학교: 아침 7:40 윤,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국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빈민 선교교수 2. 티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Seed USA 2021 신년감사예배가 실시간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천국복음을 온 세상에!!

2021년 SEED USA 신년감사예배

시드선교회(국제대표 박신욱 목사) 2021년 신년감사예배가 11일 오후 7시,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드려졌다.

찬양으로 시작한 예배는 김영재 선교사 기도와 밴쿠버 시 온선교회장단의 특별찬양이 있던 후 노창수 목사(이사장,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의 설교로 진행됐다.

본 예배를 통해 시드선교회는 새해 목표인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를 발표하고 7대 기도제목을 나눴다. 이날 예배에서 "펜데믹과 세계정세를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므로 천국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다음 일곱 가지 기도제목을 기억

하며 기도로 한해를 살고 선교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아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뒤 장세균 목사(시드사무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올 한해 시드선교회의 기도 제목은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청년회 센터를 마련하게 하옵소서, △홍보/영상 사역자를 보내주옵소서. △본부후원을 일으켜 주옵소서. 시드 선교에 관한 문의는 (562)926-4700 E-MAIL: seedwo@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65세 이상 시니어 COVID-19 백신 접종

백신 접종 자격 여부 알려주는 새로운 도구 출시

주정부는 의료종사자들 가운데 백신 접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한 COVID-19 백신 배포 속도를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우선 진행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장 심각한 결과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백신을 가능한 빨리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포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다"며 "65세 이상 연령층은 이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는 다음 그룹이다.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도 차례가 오고 있다. 더 많은 백신을 주정부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 1A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의료 종사자와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인 토마스 아라곤 박사는 "병원이나 다른 중환자실이 포화상태인 만큼 의료시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입원 위험이 가장 높은 주민들의 예방 접종에 집중해야 한다"며 "65세 이상 연령층을 우선순위에 두면 입원을 줄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주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고, 아직 아닐 경우에는 접종이 가능할 때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하고 곧 가동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의 두 번째 단계는 카운티와 시, 기타 지역 등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 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접종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해당 행사에서 백신 접종 일정을 예약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뉴섬 주지사는 백신 행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100만개의 추가백신 접종목록표를 세웠다. 주지사의 방침에 따라 주정부는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백신 접종을 해줄 수 있는 의료전문가들의 수를 10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자원관리 추진 약속.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Vaccinate All 58에서 볼 수 있다.

미주장신학대동문회 '사랑의 선물나누기' 행사

미주한인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동문회(동문회장 박종희 목사)가 지난 11일 미주장신 주차장에서 드라이트 브루 방식으로 '사랑의 선물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미주장신 동문을 포함해 주변의 이웃 100명에게 쌀 20파운드 한 포와 조미김 한 박스를 선물하며 박종희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문과 이웃에게 작은 위로를 바라며 동문들이 심심일만으로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참여가 더욱 확장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함이 있는 단체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주장신 동문회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동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줌을 통한 만남의 장도 준비하고 있다.

박종희 목사는, "오는 1월 17일 오후 6시30분(서부시간)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다. 동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동문이 줌을 통해 교제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박종희 목사(310-508-2733), 이메일 mylord4eva@hotmail.com (기사제공: 미주장신동문회)



미주장신 동문회에서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다.



2월에 진행될 세미나 포스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독려

한인가정상담소, 자녀 마음건강과 공금증 해소 세미나 개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LA 아동보호국(DCFS)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1월 1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현재 상황을 발표했다.

본 기자회견에는 한인가정상담소 소장 캐서린 염, 위탁프로그램 매니저 엘리스 리, LA 아동보호국(DCFS)의 아동보호 핫라인 본부장(Division Chief Child Protection Hotline) 카를로스 토레스(Carlos Torres)가 참석했다.

급작스럽게 준비된 본 기자회견은 최근 대중적 공분을 자아낸 한국의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책과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하기 위해 열렸다. 본 기자회견에서 "요즘 특별

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이전보다 증가했을 거라 예상되지만 오히려 실제 신고건수는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캐서린 염 소장은 "많은 아동들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르며 침묵 속에 고통을 받고 있어 주위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이 시급하다. 아동학대는 대부분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파악조차 어렵다. 특히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 학교, 유치원 선생님 등의 신고의무자 신고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은 아동 학대 피해자 신고를 늘리기 위해서 웹사이트(https://dcfs.lacounty.gov/)와 24 시간 핫라

서부교계 게시판

주님의영광교회 설립22주년 예배 및 임직식

주님의 영광교회는 지난 17일(주일) 설립 22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2월 14일(주일) 2부 예배시간을 통해 박상윤, 양재철, 황찬호 장로 임직예배를 드린다. ▲문의: (213)749-4500

LA 한인상공회의소 장학금 신청안내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일한)에서는 한인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LA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고등학교 및 대학생이며 선발 인원은 30명 내외. 학교생/교수/단체책임자 추천서 1부 및 자기소개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1월 31일. 합격자 발표는 2월 12일 LA 한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제출처: 3435 Wilshire Blvd. #2450 LA CA 90010. ▲문의: info@lakacc.com

소망소사이터 치매환자 간병인 세미나

소망 소사이터(이사장 유분자)가 주최하는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가족, 간병인 전라교육"이 1월 21일(목),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화상세미나로 진행된다. 이 교육 시리즈의 주제는 치매 환자와 공감할 수 있는 대화 방법, 치매 환자의 성격과 행동 변화에 대한 이해,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 등이며, 이 교육 시리즈에 참여함으로써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들이 환자를 돌보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참여자 간에 정보교환도 가능하다. 이 세미나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오전에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크리스천경영의 기초 온라인 공개강의

그레이스미션대학(Grace Mission University, GMU)에서 2021년 봄학기 2월 6일부터 15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강의로 Basic Foundations of Business(크리스천경영의 기초) 과목이 실시간 온라인과 녹화 2가지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될 예정이다. 1월 28일까지 수강 및 청강(150달러) 모든 신청자에게 제임스 교수의 주교재인 '시장에서의 기독교영전 전략-성경적 기초와 비즈니스 선교(한국어): Christian Business Strategy in the Marketplace: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as Mission(Korean Edition)' 책을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714)525-0088 Ext 101, 102

인(800-540-4000)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있으며 한인가정상담소(213-235-4843)로 전화해도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에서는 학대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서비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지원, 진지 양육자 지원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캐서린 염 소장은 "한 사람 혹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인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에서는 자녀의 마음건강과 심리 공금증을 풀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이야, 너 때문에 행복해' 시리즈로 2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강사는 소아정신과전문의 수잔 정 박사.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줌(Zoom)미팅으로 무료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http://tinyurl.com/dearsusan에서 사전 등록해야 좀 링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213)235-4848 혹은 mlee@kfamla.org로 연락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서부(CA)교회안내</h1>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cusa@yahoo.com / www.lafc.com Tel: (323)915-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나성영락교회</h4> <p>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영성) 새벽기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p>	<h4>나침반교회</h4>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영목성일-금: 오전 5:3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p>	<h4>남가주든든한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c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어전 (장소: KDC, 킹덤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금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렉스 권영자,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4>머무는교회</h4> <p>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5-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St,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 장소)</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영년부)수: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Tel: (310)749-4756</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매주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밀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CA Irvine, CA 92612</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열매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4>엘피스가족원</h4> <p>원장: 박운송 목사 (LA)세움연합교회교회 협동목사 상담사: (월-금) 오전 9:45(분당) 상담사: (토) 오전 9:45(101호)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방학사역 4. 비터링 사역 http://www.elpist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영성대제기도전: 955호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새운교회</h4>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후 5:30(월-토) 성령대제: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4>좋은마을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부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h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핼(PIM)선교회, 교회</h4> <p>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p>	<h4>하늘소망교회</h4>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영성경이 임하여'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im@bk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총신대 정이사 체제 전환 확정

사분위 추진계획안 발표 “3월 이전 정상화 기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14일 총신대(총장 이재서) 재단이사회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확정하고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사분위는 전날 총신대에서 열린 온라인 청문회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비공개 청문회는 학생대표 2인, 총신대 총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 대표 2인, 전·현직이사협의회 대표 2인 등 8인이 4개 조로 나눠 3시간여 진행했다. 이재서 총장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총신대가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기에 충분히 안정화됐다는 점을 어필했다”면서 “학생과 교직원, 총회 등 총신대 관련 구성원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3월 전에 법인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총회 대표로 청문회에 참석한

이들에게는 ‘총회 인사들의 과도한 학교 운영 개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강석 예장합동 총회장은 “일부 인사들의 잘못된 욕망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했다”며 “시대를 이끌어갈 바른 목회자를 길러내는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 총회와 총신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생들이 우려해왔던 ‘학내 사태와 관련된 전·현직 재단 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해준 것처럼 향후 정이사를 추천할 때 우려를 살 만한 인사를 배제하고 학교의 설립정신을 지킬 비정치적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분위는 총신대 정상화 추진 계획안에 따라 전·현직이사협의회, 총신대 대학평의원회, 총신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총회, 교육부 5개 주체에 정이사 후보자(30인) 추천을 맡기로 했다.

KWMA 31차 정기총회 열고 예산안 등 처리

신임 사무총장 과반 득표자 없어 22일 재선거

한국 세계선교협의회(KWMA)가 12일 제31차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2021년 예산안, 조직개편안 등 안건을 처리했지만, 신임 사무총장은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출하지 못했다. KWMA는 오는 22일 임시총회와 함께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임기 4년의 사무총장 선거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교회(GMS) 사무총장을 지낸 강대홍 선교사와 예장고신 세계선교교회(KPM) 본부장을 역임한 김종국 선교사가 후보로 나섰다. KWMA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K보팅’을 활용했다. 투표권을 가진 KWMA 이사와 회원단체 대표 등 178명 중 14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과반 득표자가 없어 신임 사무총장 선출은 무산됐다.

KWMA는 총회 후 법인이사회를 열어 격론 끝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KWMA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번 총장선거는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인이사회에서 오는 22일 총회를 열어 두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KWMA는 법률 자문을 받아 후보 공고부터 총회 투표까지 선거 전 과정을 다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려면 4인 후보를 선정하는 정책위원회와 이를 3인 후보로 정리하는 운영이사회를 거쳐 법인이사회에서 최종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KWMA는 매년 총회 때 발표하던 선교통계조사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KWMA는 2020년 선교통계조사부터 한국선교연구원(KRIM)에 이를 위탁했다.

“세계로교회 예배 요구는 정당”

예장고신총회장 전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이 최근 교단 소속 부산 세계로교회가 행정당국으로부터 받은 폐쇄 조치에 대해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예장 고신 박영호 총회장은 “세계로교회가 정부의 현 방역 지침에 반해 예배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무기한 예배당 폐쇄 명령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마침내 일어났다”며 “그러나 세계로교회가 행정당국에 정한 법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박 총회장은 “이번 세계로교회의 예배당 폐쇄조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결과”라며 “평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계로교회가 2단계 방역 원칙을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계속 진행한 이면에는 정부 방역정책의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목욕탕이나 영화관,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과 다른 방역기준이 교회에 적용됐다. 수천 명이나 수백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20명만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당국은 일률적으로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며 “이는 정부의 방역기준이 현장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결

과이며, 결국 정부가 이 모든 일에 명분을 줬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총회장은 세계로교회의 대면 예배 요구는 방역지침을 어긴 신천지나 일탈한 일부 교회들과는 다른 태도임을 강조했다. 그는 “고신총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생명과 같은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우리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고신총회는 한국교회총연합의 책임 있는 회의를 끼고 있는 세계로교회를 계속 하면서 협력을 해왔다”며 “동시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도록 당국자들에게 겸허하게 청원해 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총회장은 “세계로교회가 당한 일은 한 교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슬기롭게 이번 일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 온대로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정부와 당국을 위해 협력하며 또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독교청년 90% “대면예배 강행 부끄럽다”

청년사역연구소 SNS 통해 설문… “슬프고 화가 난다”

정부의 종교시설 비대면예배 조치에 반발해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최근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청년 10명 중 9명은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사역연구소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벌어진 일부 교회의 대면예배 강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하루 만에 청년 518명이 설문에 답했다. 이들 중 291명(56.1%)은 이런 모습에 슬프다고 대답했고, 173명(33.3%)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모습에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화가 난다고 답했다. 대면예배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1명(9.8%), 기타 의견은 3명(0.8%)이었다. 응답자 중 90% 가까이가 부정적 의견을 전한 것이다. 청년사역연구소는 방역 당국에 맞서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로 인해 슬프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역연구소장인 이상갑 산본교회 목사는 “일부

목회자가 대면예배 강행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우리는 상당수 침묵하는 성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며 “교회가 공격 신앙에서 떠나 있고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한다면 청년들의 교회 이탈이나 ‘가나안 성도’ 현상의 가속화는 물론이고 불신자 전도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대면예배 강행을 고수하는 10%의 목소리를 따른다면 한국교회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면예배를 외치는 특정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수많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점점 죽어갈 것”이라며 “이는 기독교의 영적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대면예배가 좋고, 중요하다는 건 목사로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대면예배를 고수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코로나시대 건너며 개신교인 보수성 강화”

기사연 ‘2020 개신교인 인식조사’ 토론회

코로나19를 거치며 한국 개신교인의 보수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 성향에 관한 질문에 보수라고 답한 비율이 1년 새 7.4% 포인트 늘었다. 특히 20대 개신교인의 보수 성향 응답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크리스찬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이 주관해 실시한 ‘2020 개신교인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 분석과 전망을 이야기했다. 분석을 담당한 연구자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유튜브를 통해 발표했고, 논평을 담당한 토론자들은 각자 자리에서 줌을 활용해 발언했다. 이상철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드러난 한국 개신교의 정치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지난해 7월 기사연이 지낸캠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패널 활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개신교인의 28.8%는 보수, 31.4%는 진보, 39.8%는 중도라고 답했다. 2019년 같은 조사와 견줘 보수 응답은 7.4% 포인트 늘어난 반면, 중도 답변은 6.8% 포인트, 진보 답변은 0.6% 포인트 각각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안정을 희구하는 보수 성향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개신교인은 진보 성향(40.4%)이 보수 성향(21.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반대로

60대 이상에서는 보수 성향(43.0%)이 진보 성향(21.3%)의 2배가 넘었다. 특히 20대는 보수 응답자가 22.3%로 60대를 제외한 연령층 가운데 보수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2019년 조사에선 20대 보수 응답은 12.7%에 그쳤는데 1년 만에 10% 포인트 가까이 진보에서 보수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와 그에 따른 취업 및 아르바이트 시장의 붕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더욱 요원해진 내 집 마련의 꿈, 조국 추미에 등 전현 정부부장관들에서 본 부모 찬스의 문제 등이 계기를 줬다”고 밝혔다. 개신교인의 공동체 의식은 매우 높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선 사회 구조적 해결보다 개인의 노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와 환경 인식을 분석한 신의상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가난의 원인을 묻는 말에 45.2%는 개인의 책임, 35.2%는 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했다”면서 “연령, 월 가구소득, 교회 내 직분이 높을수록,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경제성장과 지구온난화 방지 중 우선해야 할 것을 묻는 항목엔 개신교인 88.9%가 온난화 방지를 택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창조론과 정치기론에 기반을 둔 기독교인의 앞선 인식을 엿볼 수 있으나, 교회의 실질적 행동은 아직 부족한 형편”이라고 평가했다.

부산 세계로교회, 잔디밭서 대면예배

손번호 목사 “주일 2부 예배는 지킬 것”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가 폐쇄 후 첫 주일예배를 야외에서 진행했다. 앞서 손번호 세계로교회 목사는 교회가 폐쇄되더라도 현장 예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로교회는 17일 예배를 교회 잔디밭 광장에서 드렸다. 오전, 오후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진행했다. 이를 위해 세계로교회는 전날 잔디밭 입구에 자동방역시스템 ‘워킹스투’를 마련하고 잔디밭 좌석도 2m씩 거리를 두고 설치했다. 잔디밭 경계에는 안전 펜스가 세워졌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 오자 세계로교회 교인들이 삼삼오오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은 체온 측정과 명부작성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배 시작 전 준비된 좌석이 거의 채워졌다. 교회 측은 예배마다 약 200명씩 참석했다고 전했다. 손 목사는 오전 설교 대부분의 시간을 방역당국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전체 6만 확진자 중 교회 포함 다른 종교시설 관련자는 6.7%에 불과했다.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착각(錯覺)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매우 큰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자기의식이 특별한 이들이 자주 저지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특별하다거나 그렇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착각이 클수록 자주 범할 수 있는 것이 착각이다. 착각은 사실을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자기당착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착각은 그 끝이 어딜 지 모를 만큼 위험천만하다. 열혈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그의 과도한 도박이 몰고 올 파장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임기를 일주일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빛어지는 정치권의 탄핵이라는 차꼬에는 이미 걸리고 말았다. 뒤흔는 것이냐는 핀잔이나 몰매로 끝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그의 불행이며 이는 그의 착각에 따른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거의 예외가 없다. 본인 아니면 자식들로 인해 보통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설마라는 방식이 권력의 방패로도 막지 못한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국의 정부도 그런 전철을 밟는 듯 한 행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촛불민심을 힘입어 창출한 정권인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민심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왜? 권력을 잡으면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것들조차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전반에서 친북 일변도로 치닫는 통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40% 지지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을 맞이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조차 북을 향한 구애는 예외가 아니었다. 끊임없는 구애(求愛)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북을 향해 일편단심의 애가(愛歌)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애가(愛歌)가 아니라 차라리 애가(哀歌)라 느껴질 정도다.

권력자들의 착각은 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 결과들에 대한 엄청난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이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근근이 오늘을 살아내는 이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갔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열망은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지만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할 것이라고 어둡게 전망한다. 미세먼지라는 환경오염이 일상화되면서부터 마지못해 쓰기 시작한 마스크지만 이것에 익숙해지기 참 어렵다. 안 쓸 수 없어 쓰기는 쓰되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마스크는 계륜과 같다.

서양에서는 마스크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하다고 한다. 특수업종을 제외하면 자기를 감추고 싶은 범죄자만이 쓴다는 인식으로 코로나19 초기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의 못매에도 마스크를 거부하다 확신이 되었으며 미국 내 감염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의술과 의학이 뛰어난데 그깟 마스크 정도야 하는 착각과 오해가 전 세계 감염확산의 단초가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착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되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이단이 되고 파멸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지난 1월 3일 일요일 미(美) 제117차 하원 개회기도에서 사상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연합감리교회 목사이며 진보적 하원의원인 엠마누엘 클리버(Emanuel Cleaver, 민주당 미주리 제5선거구)는 개회기도를 맡았다. 클리버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주권”을 인정하는 기독교 언어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 없이는 우리의 잘못된 본성에 의하여 위협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26절을 인용하여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을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지금 이곳에도 당신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고 기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끝맺음이었다. 그는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그리고 여러 다른 것들과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우멘(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things. Amen and A-woman)”이라고 기도를 마쳤다.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멘 앤드 아우멘(Amen and A-woman)”이라는 기독교적인 단어와 성(性), 즉 성별(性別)에 대한 용어를 나란히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클리버의 기도가 착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된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착각과 무지는 이 땅과 그 자신들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만큼 절대 착각이 아니다.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파멸이며 불행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말자.



“우울증과 영적 치유” (32)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영적 처방: 5. 모두 용서하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4: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벧전3:8-12).

우울한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 화, 분노, 비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어 고통으로 무기력하고 평안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공격을 받게 되어 괴로움의 영적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고백의 편지 쓰기: 만약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편지를

써라.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처한 상황에 관해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영적 처방전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용서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라.

용서에 대한 오해: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므로, 학대를 받아들이고 난폭하거나 폭력적인 상황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문제를 주는 사람이나 상황을 떨쳐 버리고 자신과 남을 용서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자신, 그리고 다른 이와 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 때로는 용서하기 위해서 가시가 돋친 것 같은 사람과의 화평을 위해 관계를 끊어야 할 때도 있다. 혹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할 때도 있다.

용서 편지 쓰기: 원망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의 편지를 써라. 그 편지를 반드시 보낼 필요는 없으나 보내는 것이 모든 이에게 유익하다면 그리하라. 당신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에게 용서의 편지를 써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기: 마귀는 우리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고통과 분노감을 갖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12:14-21).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요일4:8-13).

기도: “하나님, 저의 파괴적, 부정적, 비판적인 삶을 용서하시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저를 상처 입힌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는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해주세요. 용서하는 영으로 대신하여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기다리오니 말씀

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85%의 선함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죄악된 욕망에 맞서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따르는 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1-2) 라고 썼다.

우리는 또한 죄의 욕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쁜 성격과 습관 등의 어두운 면을 15% 가 지고 있다. 이 어두운 면은 용서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 변화시켜야 한다. 마귀는 우리의 어두운 면에 나타나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지에 희생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 85%가 나올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마음에 초대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간구하라.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은 평안을 가질 수 없다.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이들도 평안을 가질 수 없다.

기도: “예수님, 저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삶에 오시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사오며, 주님이 저를 위해 하신 그 일로 인해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을 얻기 위해 저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아멘.”

yonghui.mcdonald@gmail.com

용서가 학대 수용 아니야, 화평위해 관계 끊어야 할 때 있어 하나님의 선한 성품 85% 나오도록 성령의 인도받으며 기도

그대로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학대하도록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을 무력감, 절망적, 분노, 분개, 혹은 증오의 감정을 갖게 할 만큼의 위험한 상황에 계속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학대상황과 위험한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학대와 폭력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하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학대적인 상황에서 벗어났거나 문제가 해결된 뒤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영 때문에 계속 고통

계 한다. 아픈 기억들이 생각날 때마다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하라. 그러면, 점진적으로 또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영은 떠나가고 평안을 찾게 될 것이다. 치유함은 과정이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6:27-28).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3-44).

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 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1:9-10).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자신이나 남을 향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불붙고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소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위대하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저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포함한 모두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시켜주세요.”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 바꾸기: 큰 그림을 보자.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일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을 해도 열심을 내도 무었에 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골1:12-18).

끝으로 시초성말, One Story를 더 잘 공부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처음 몇 번은 편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며 듣습니다. 오타나 실수를 찾는 마음이 아닌, 화면 작업 기술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눈을 감고 들어도 좋습니다.

2. 그리고 잘 찾아야 합니다: 영상을 다시 보며 성경구절이 나오는 부분에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열어 확인하고 밑줄을 긋습니다. 색을 칠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성경구절들은 다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고 밑줄을 그어 스스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3. 또한 반복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본 말씀을 되새기며 영상을 보며 듣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인식되었으면 더욱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인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도록 기도하며 반복 시청합니다. 제발 한번 듣고 다 알았다고 해서 안됩니다. 바로 아는 것은 행함으로 이어지고 삶의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One Story를 통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권 한권 정경다리를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부디 주의 은혜와 능력이 끝 날까지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hfamilya@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서론 5강 /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의 동행,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였고 (요8:47)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였습니(요5:38,39).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요일2:4,5).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계1:3).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없이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와 같음을 인식해야 합니다(암8:11).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통을, 허기짐을 느껴야 합니다. 육신도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듯 영적인 기갈을 느껴야만 합니다.

우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살전2:13)(행17:11).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생명이 될수록 하나님은 더 크고 우리는 더욱 작으며 하나님은 더욱 강하시고 우리는 더욱 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

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신30:11-14). 그렇다면 성경과의 동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경과의 동행, 성경통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과의 동행,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묵상, 성경암기, 성경연구, 성경공부, 성경쓰기 등이 있는데 모두 좋지만 무엇을 하던 성경통독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으로 1,189장 30,993절이므로 만일 하루에 10절씩 목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함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시119:148)(시57:7,8/시108:1,2).

세 번째, 성경과의 동행, 매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매일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우리도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만 합니다.

매일 꾸준한 동행을 위해 성경을 '장' 단위로 통독하기 보다는 '페이지' 단위로 통독하는

제 성경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할 자가 없습니다(신17:18,19).

다섯 번째, 성경과의 동행, 절대로 선택, 분리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는 구약 창세기로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가야합니다. 성경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지 않고 좋아하는 곳만을 선택, 분리해서는 안됩니다. 구약의 시편이나 잠언, 신약의 사복음서 등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어떤 구절도 성경 각 장에서, 성경 어떤 장도 각 권에서, 성경 어떤 권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읽고 배워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편식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구절이나 장 혹은 권만을 선택한다면 그 외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한 권으로 한 목소리입니다.

성경 통독 기반으로 하루 첫 시간에 매일 평생 해야 전체를 익히 해석 말고 책으로 함께 듣기/찾기/반복

여섯 번째, 성경과의 동행,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야합니다. 절대로 억지로 풀려 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원함과 욕심과 이해와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 성경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벧후3:1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집된 선지식과 경험 등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 성경과의 동행, 스마트폰 폰이 아닌 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거나 공부할 때는 개인 '성경책'을 사용하여 그냥 책이 아닌 '나의 말씀의 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늘 말씀을 '스마트폰'으로만 읽거나 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책 안에 줄도 긋고 색칠도하고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과 감사와 감동의 눈물의 흔적도 있어야 그 성경책은 읽고 읽고 또 읽어 할지 모르지만 성경 어떤 구절도 성경 각 장에서, 성경 어떤 권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읽고 배워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편식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구절이나 장 혹은 권만을 선택한다면 그 외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한 권으로 한 목소리입니다.

여덟 번째, 성경과의 동행, 모국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가장 편하고 이해가 잘 되는 언어로 성경을 읽고 배워야 성경의 내용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영어공부 차원에서 영어로만 성경을 읽

는데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만 성경을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해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진도가 느려 역시 포기하기 쉽습니다.

아홉 번째, 성경과의 동행, 여러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성경을 통독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함께 격려하며 서로 동기를 부여해주며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영적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나가는 것만 어렵습니다(시133:1)(전4:12). 때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복음화 선언(계10:5-7)찬248장

바다와 땅을 주관하는 천사가 창조자를 가리켜 어떤 맹세를 합니까? 첫째, 그는 만물을 창조한 자를 가리켜 신속한 심판의 단행을 아뢰니다(5-6). 아들의 구속 계시가 천사에게 전달되고 그 천사의 계시가 교회에 전해져 성령께서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보는 긴박감을 가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둘째, 이것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복음의 비밀이 모두 성취됨을 선언합니다(7). 실질적

인 구원과 심판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구속의 완성을 선포함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 모양으로 증거한 복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성령을 통하여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7). 현재 내가 믿고 증거하는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지금 집중할 내용입니다. 새해에도 복음 성취의 약속을 따라 복음 증거에 힘써시다.

화 작은 두루마리(계10:8-11)찬241장

심판의 천사가 가진 작은 두루마리는 예언의 형태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첫째, 먹듯이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계시입니다.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듯 성경을 전적으로 믿고 내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둘째, 받을 때 꿀 같은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

과 진리를 알 때 눈이 밝아지고 환해지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셋째, 쓴 경험도 각오해야 합니다. 말씀의 단맛은 순종의 쓴맛으로 나타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고난이 물려움을 염두에 두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약속하신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놀라운 경험을 합시다.

수 두 증인의 교회(계11:1-6)찬382장

구속사가 완성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교회의 증거 사역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첫째, 교회인 거룩한 성은 42달 박해를 받습니다. 정해진 박해기간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 하심을 가리킵니다. 둘째, 이때 두 증인의 교회는 1260일을 예언하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서도 그가 행할 예언의 사역이 동시에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교회의 증거를 통해 이루십니다. 셋째, 두 증인의 절대 권위로 나타난 이적은 원수를 파합니다. 교회의 음부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의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구속 완성에 쓰임 받습니다. 교회 증인으로서 한 해를 살아갑시다.

목 두 증인의 능력(계11:4-6)찬383장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된 교회는 어떻게 능력을 나타낼까요? 첫째, 모세와 같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세웁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행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현상은 이런 일에 포함됩니다.

둘째, 엘리야와 같이 자연을 통해 이적을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천하에 나타냅니다. 이적을 통하여 예언을 권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 시대에 두 권세를 가진 교회의 능력을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금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계11:7-11)찬154장

이런 혁혁한 교회의 증거사역에도 불구하고 일시동안 증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두 증인은 짐승과의 전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가 잠시 당하는 핍박으로 죽게 되는 일은 한 밀알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죽기까지 충성하는 진실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교회의 증거는 목숨을 바쳤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 세상은 증인의 죽

음으로 서로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짐승의 활동무대이고 사람들은 짐승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셋째, 그 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죽은 두 증인을 살립니다. 에스겔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 살아난 것처럼 성령의 생기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교회에 주권자인 성령은 언제나 새생명을 만드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생명으로 중만한 새해를 살아갑시다.

토 두 증인의 승천(계11:12-13)찬206장

두 증인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처럼 살어나 어떤 일을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들의 처소인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모든 구속을 완성하고 모든 승리를 가진 자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름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교회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나고 그 능력으로 하늘에 오릅니다. 승천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이 높아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 안의 왕 노릇한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현재의 난관 속에서도 승리자의 영광과 효능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셋째, 남은 자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살아 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더 큰 효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받을 단지만 하늘에 발판을 두고 나아갑시다.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

아름다운 사람 다니엘

2021년이 시작된 지가 거의 20여일이 지났지만 새해를 맞이할 때의 기쁨과 환호는 간곳없고 우리는 또다시 힘든 삶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외사당이 접거되고 코로나 확진자는 유례없이 늘어만 가고 또 다른 변형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등 여전히 우리는 공포와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필자는 요즘의 현실을 보면서 옛날 유다가 망하여가는 그 모습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다. 유다의 몰락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그런 것이었을까? 천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유대의 왕, 종교지도자들, 민중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자기 길을 걸어감으로 유대는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당하게 되지 않았는가?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주장할 때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유대를 구해내시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대로 철저히 유대는 멸망하지 않았던가?

가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다니엘은 우리 자녀들의 본보기 뿐 아니라 성인들이 반드시 닦아야 할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는 자녀교육의 지침서요, 부모 모델의 교과서요, 미래를 살아가는 등불이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닦아야 할 셈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살펴봄으로 우리 모두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읽고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희갑 목사
(이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왜 다니엘인가? 다니엘은 불신과 어둠의 시기에 믿음의 찬란한 햇빛을 들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3,237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수많은

어려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믿음의 길 걸어간 다니엘 다니엘서는 자녀교육의 지침서, 부모모델의 교과서, 미래 살아가는 등불

예수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니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다니엘 시대 요시아왕이 그랬다. 유다의 멸망을 알았지만 그는 더 힘을 내어 이스라엘 영성 개혁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비록 유다는 멸망했지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세계 방방곡곡 디아스포라로 보냈다. 유대인들은 거기서 믿음을 재건하고 새로운 믿음의 씨를 뿌렸다. 필자는 오늘부터 구약성경 다니엘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한다. 왜 지금 다니엘인가? 첫째, 필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매우 유사한 시대적 배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최악에 깊이 빠져 암울한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살면서 자녀야 할 가치와 자세를 바로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모델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다니엘의 어린 모습은 그들에게 역할 모델이 될 뿐 아니라 다니엘의 성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성인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여지지만, 불행하게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은 간음했으며, 바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 노아는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다 아들을 저주했고, 야곱은 형과 삼촌을 속였으며,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속여 죽음을 피하려 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고 베드로는 세 번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흠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다. 그의 일생은 한 번도 불의를 저지르거나 나쁜 일에 가담하거나 불신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시종여일, 일편단심, 표리부동의 사람이었다. 그리고요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다. 이 만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도 여러 왕조를 통하여 중용 받았던 전대미문의 사람이었다. 왜 다니엘인가?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다.

(15면으로 계속)



“사랑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비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린치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찬양과 설교 빠진 예배, 나는 싫다!

(2면에서 계속)

노래도 하지 않고 더 짧은 설교를 한다면 복음주의자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예배에 일반적으로 소모됐던 60-90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복음주의교회가 지역 사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 위기는 복음주의자들이 행해온 예전이 얼마나 결핍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선호하는 것은 Zoom 소규모 회의나 사회적 거리를 둔 혹은 마스크를 낀 채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다.

나는 최근에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짧은 설교에서 제기된 질문들을 나누기 위해 소그룹 분반 모임으로 서너 번 나그림이 있다. 이는 마치 세미나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말씀은 훌륭하다. 나는 그 말씀을 통해 산다. 그러나 누가 말하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는가?

나는 최근에 온라인에서 한 교회의 문구를 보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나님께 해당되지 않

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귀여운 교회간판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맞는 말이지만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께 적응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이 내가 교회예배에 참석할 때 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좋은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기독교 예전이다.

나는 예배의 실천과 상징들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불안을 이해한다. 또한 초기의 회교 의미를 잃은 지 오래 지난 암기된 듯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 복음주의자들의 예배에 대한 제한적인 시각을 직면하게 하고, 그들이 종교적 상징과 이미지의 사용, 기도와 회중의 응답 압송, 양초와 향의 사용, 금식과 잔치 등과 같은 기독교의 전

통적인 실천들을 회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만약 당신이 복음주의자라면 당신의 교회가 매년 진행되는 예전 달력을 아직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응답송가(antiphons)', 성인을 찬미하는 '성가(kontakia)' 또는 동방정교회에서 쓰이는 '짧은 찬송가(troparia)' 등의 사용을 꺼릴 것이다.

그렇다면 회중에게 단순히 앞서 듣고 관찰하게 하는 대신에 함께 적극적으로 낭송하고 응답하고 앉고 일어서고 무릎 꿇고 등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회개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 비복음적인 것일까? 정말 기도문을 외우거나 죄를 고백하거나 촛불을 켜거나 미로를 걸으면 나의 자각증을 잃게 되는 것일까?

성찬식을 할 때 그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설교로 덮지 말고 조급한 더 오래 머무르도록 하자. 한동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결코 거리감이 없는 우리의 친구이자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4.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

한국에 이혼하는 가정이 50%가 넘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혼을 세계 제 2위의 불명예스러운 기사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소한 일로 서로 말을 잘못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과 그 가정의 행복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의 파괴를 막을 수 있을까요?

1. 칭찬의 말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결점, 단점을 들추어내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해주어야 말도 잘 듣고 용기와 힘을 얻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등 칭찬거리를 찾아 칭찬해야 합니다. 아내한테도 "오늘 당신 유난히 예쁘네!", "당신은 불수

럽어"라고 말합니다. 반쯤 물이 담긴 물컵을 보고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어!"라고 말하지만 긍정적 말을 하는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아있군!"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해주어야 아내도 행복하게 됩니다. 아내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어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망할 놈, 돼질 놈, 썩을 놈" 그러지 말고 "부자될 놈, 잘될 놈, 크게 될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긍정적 말을 하여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룹니다.

3.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

부부간에도 가정에서 감사의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불평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감사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치약 하나 사용하는 것으로 이혼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대범해

습니다.

4.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의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은 나의 신앙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상시 우리의 말도 하나의 신앙고백입니다. 구원도 우리의 말로 표현해야 이루어집니다. 병고침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믿음의 말은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믿음의 말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전수하는 최선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5.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

칭찬과 긍정적인 말, 감사와 진실한 말로 행복 다져 기도는 신앙고백, 믿음으로 말하면 엄청난 능력 있어

록 복스럽고 매력있던 말이야!"라고 한번 칭찬해보십시오. 식단이 달라질 것이고 노후가 보장됩니다. 남편한테도 "우리 남편 최고야!", "당신 볼수록 멋있어!"라고 하며 기가 죽은 남편을 칭찬하고 위로하면 입이 꼭 벌어지면서 죽기 살기로 가족을 잘 먹여 살리려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 서로 칭찬하는 말을 찾아서 하므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2.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쁜 장미꽃을 보아도 "꽃은 예쁘네 가시가 있어서 틀

서 치약을 대가리에서부터 어떻게나 짜서 쓰고 집어던지곤 하는데, 남편은 꼼꼼해서 치약을 끝에서부터 푹푹 말아 가면서 짜면서 썼습니다. 부인의 치약사용법이 마음에 안든 남편이 짜증을 부리며, "무슨 여편네가 치약을 이렇게 쓰느냐?"고 욕을 하게 되자, 이에 얻 받은 부인이 "무슨 남자가 존존하게 치약 하나 쓰는 것 가지고 그러느냐?"고 대들며 불평하다가 대판 싸움을 하고 결국은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서도 말로 감사의 표시를 하고, 경제력이 있으면 감사의 카드(Thank You Card)를 보내거나 선물을 주고받으면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

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가정은 마귀가 들끓고, 진실한 말을 하는 가정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토지를 팔아 헌금하면서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서로 속이지 않고, 늘 진실을 말하고, 자녀들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

(14면에서 계속)

그의 탁월한 지식과 해안은 세 번에 걸쳐 다른 왕조 하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었다. 왜 그런가? 그는 부패하지 않았을 뿐더러 학식과 지혜가 넘쳐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통상 세상학문에 뛰어난 사람이면 경우 신앙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니엘은 달랐다. 오히려 그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신실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오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인으로 전도하였던 사람이기도 했다.

우리는 왜 믿음과 학식중 하나만을 택하려 하는가? 믿음도 최고이고 학식도 탁월할 수 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다. 그리하여 필자는 다니엘이 우리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니엘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다니엘은 크리스천 성인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이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며 후세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긴 사람. 바로 크리스천 성인들이 그를 본받아야 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때가 그의 나이 언제였을까? 혹자는 그가 젊을 때에 그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에! 그의 나이 75세였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을 본받아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다니엘과 같이 지식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는 전문적으로 뛰어났을 뿐 아니라, 개인적 성품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에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차세대 아이들이 모두 다니엘처럼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 그들의 때가 오면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앞으로 20회에 걸쳐 다니엘을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그를 조명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를 본

받도록 하고, 다니엘이 장년이 되었을 때, 성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가이드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공하려 한다. 다니엘,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hlee0414@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1부예배(화): 오전 7:00 주일2부예배(화): 오전 8:15 주일3부예배(화):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전일):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전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9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전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전일예배: 오후 3:00 토요일: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833(C) 1000 E. Vel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함향후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전일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수요일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수요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뉴노멀 시대 맞는 교회공동체 된다!

처치앤서워스, 톰 S, 레이너 목사의 뉴노멀 교회가 고려해야 할 10가지 사항 소개

뉴노멀(New Normal)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설정되는 표준을 말한다. 원래 이 용어는 급변하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서 등장한 경제 용어지만 지금은 사회적 용어로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의미하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사태는 국내외적으로 각 분야, 영역에서 뉴노멀의 시대를 도래하게 했고 교회도 시대적 변화를 피할 수 없다. 교회는 저성장의 고착화, 인공지능(AI)의 역습, 바이러스의 기습 등 비상식적인 것들이 상식이 돼버린 뉴노멀 시대에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1. 디지털 세계에서 배운 교훈 중 교회에 새롭게 적용할 것 계획하기(여러분은 어떻게 디지털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2. 공동체 재발견하기(여러분은 어떻게 공동체의 수요/필요

를 채우며, 공동체에 복음을 접근시킬 것인가?)

3. 청지기 정신 고찰하기(여

러분은 어떻게 교회 재정 운용의 근본적 변화를 꾀할 것인가?)

디지털 세계 교훈 적용, 공동체 재발견, 청지기정신 고찰 초대교회 서신서 읽기, 교회사용 고민, 새 교회모델 검토...

4. 교회 시설 사용법 고민하기(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시설들을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5. 교회 지도자가 교회 내에서 불화를 일으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대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기

6. 다른 교회들과 연결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 고민하기(여러분은 떠오르는 새로운 교회 모델들을 검토하며, 새로운 모델의 일부가 될 것인가?)

7. 점차 감소하는 주일 오전 예배 출석자에 대한 대비책 준비하기

8. 오래된 교회 달력을 버리

고 새롭게 시작하기(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가?)

9.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읽기(여러분은 신약에 나타난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10. 교회 직원의 임무와 역할 재정비하기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뉴노멀교회'는 불가피해졌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향후 교회가 어떻게 뉴노멀교회를 세울 것이며, 이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해 2021년에도 온전히 쓰임 받는 뉴노멀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

세기언 제 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2)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이 주최한 제 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을 게재한다. 이번 독후감 추천도서는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신영), "모두 거짓말을 한다"(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침묵"(앤드 슈사쿠), "말그릇"(김운나),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리처드 탈러) 등이었다.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아름다운 말 그릇을 통해 내 자신의 자존감, 존재감 등을 찾아 보고 싶었다.

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 슬하역기능 가정환경에서 자라며, 억압과 사랑 없는 말투와 상처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과 자존감, 가치관의 혼돈 가운데 성장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마음이 따뜻하고, 온순한 사람이다. 그러나 말투가 투박한 시골 남자로서 그 또한 본인의 이혼에 대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자존감과 자괴감이 회복되지 못한 채 재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남편과 나는 서로에 대한 마음과 다르게 말 표현에 서투르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하는 습성이 생겨가고 있었다.

항상 자신들의 입장이 먼저이고, 상대방 입장은 눈에 들

어오지 않으므로 서로에게 상처 되는 말들이 점점 쌓여가며 결혼생활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그래서 상처로 가득찬 말 그릇이 넘쳐 깨지기 전, 다시 깨끗한 말로 반짝반짝 빛나게 채워 잃어버린 내 자신과 남편에게 보석 같은 서로의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이 책은 프롤로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단지 다른 말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그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닌, 그 속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을 맞고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나의 내면을 알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으며, 어떻게 하면 나의 말 그릇을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을지(p.8,10) 알려주는 말의 지침서 같은 책이기도 했다. 이 책을 읽으며 느낀 몇 가지 부분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내용 전체가 상담학적, 심리학적 view에서 바라본 단어(예: 내면아이, 어른아이, 인정 욕구, p.44)나 상담 사례 케이스가 많아서 언뜻 참고서적에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많았다.

두 번째, 특별히 part2 내면의 말 그릇 다듬기 가운데 첫 번째 과제중의 하나가 '나의 감정분석하기'에서 나 자신이 몰랐던 숨겨져 있던 '진짜 감정'을 찾아서 다루는 방법, 사례를 통한 실제적 접근 방법에 공감했다(p.80-93). 즉, 감정의 특성 중 다양한 감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의 이분화(yes or no)에 집중되어있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 욕하는 반응을

장려상/ "말 그릇"

한 원 (권사, 산호세 임마누엘장로교회)



보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내 마음 속에 세밀한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이 숨겨져 있는 나의 진짜 감정을 찾지 못한 채, 이분화 감정에만 치우쳐 화를 내고 상처를 주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성숙하지 못한 작은 말 그릇 안에 분쟁의 또 다른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 아님 '낮은 자존감'이었다. 내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에 대

한 두려움과 내가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불분명, 자기 존중이 없어 불안할 때 감정이 폭발되는 자존감 결핍이 나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런 감정을 어떻게 유형별로 조절하며(4가지 방법 제시) 의식적으로 노력, 개선을 하게 되는 직접적 방법론을 깨우치게 되었다.

먼저 1)내 자신의 감정 지각-> 2)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진정, 보유할 것인가?(절제)-> 3)어떻게 말과 감정 표현을 잘

되었다. 상대방의 고집과 아집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나의 고집과 고정관념, 공식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며, 특별히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본을 보여야 할 크리스천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고정관념과 율법으로 나의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며 회개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나의 말 그릇에 고정관념을 벗어 던지고 '공감'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날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셋째, 상대방의 공식 이해하기(p.133)는 서로의 고정관념을 이해하고 공감하기에는 알면서도 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이 습관이 훈련되어지면 공감능력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의 고집과 아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고집과 아집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나의 고집과 고정관념, 공식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며, 특별히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본을 보여야 할 크리스천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고정관념과 율법으로 나의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며 회개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나의 말 그릇에 고정관념을 벗어 던지고 '공감'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날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넷째, '질문프로젝트'(p.231)나 '부부워크샵' 등은 신선한 말하기 기술치료법으로 인상적이었다. 누구나 자신의 말버릇과 말하는 태도 등을 고치고는 싶어 하지만 결코 행하기는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제적으로 주기적인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말 습관, 감정 표현 등을 돌아보고 연습하며, 자신의 말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좋은 motivation이자 tool 이 될 듯 하다.

결론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을 요약하자면 크고 넓은 성숙한 말 그릇을 다듬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 안의 숨겨진 많은 감정을 인식하고, 절제하며 표현을 제대로 정확히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자존감 상승의 근본이며, 자존감이 회복될 때 나아가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환경과 성격이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씨름의 방식이 아닌, 같이 동행하며 서로 맞춰가는 왈츠 방식의 관계법으로 넉넉한 말 그릇을 담아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어지길 바라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넉넉하고 큰 말 그릇으로 채워졌을 때 상대방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며,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작은 듯하나 큰 변화의 역사가 나 한 사람부터 시작임을 확신하며, 책 내용 중에 '질문프로젝트', '부부워크샵'의 상세한 방법과 결과를 읽고 난 후, 나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 생겼다. 아름답고, 성숙하게 다듬어진 말 그릇으로 넉넉히 내 자신을 채우고, 나아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소생시키며, 힐링이 되어질 수 있는 조그만 말 치유사역을 해보고 싶은 바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되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과,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뎀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